RUSSIA IN&OUT

RIO

2026. 9 | No. 29

특집 기획 러시아 기술 주권 투쟁 500년사

이슈 진단 2026년 두마 선거: 결집한 여당, 약진한 신인당

RIO 초대석 조토바 러시아청년청 부청장, 청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크렘린 전망대 영웅의 부활: 돈스코이 유해 발견의 상징적 의미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극동에서 더 넓은 아시아 경제 전략으로

역사 프리즘 두 이름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예술 현장 '이해 가능한 타자': 러시아 한류의 인기 비결

미디어 트렌드 '세 번째 화폐'와 5G: 금융·통신 인프라의 변화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마침내 가을이다. 숨이 막힐 듯하던 더위가 물러나고 모기와 파리도 사라졌고, 과수원 나무에는 잘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대기는 한결 상쾌하고 맑기 그지없다. 단조로운 색채를 벗은 자연은 황금빛과 빨간색 무늬를 뽐낸다. 타오르는 불꽃과 흐르는 강물을 오래오래 바라볼 수 있듯, 가을의 단풍 또한 그런 대상이다. 오늘은 모스크바의 콜로멘스코예로 떠나보자.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황제의 옛 별궁이다. 사진 왼쪽으로 작은 건물이 보이나요? 북방 영토 개척 당시 표트르 1세가 머물던 통나무 집으로, 머나먼 아르한겔스크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현재는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다.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작금의 지정학적 상황을 푸코의 말로 번역하면, 러시아는 광인이고 서방은 이성이다. 서방의 이른바 건전한 정신의학은 미친 러시아의 침묵 위에서만 성립하는 독백이다. 서양사에서 처음부터 광인의 존재와 그 목소리가 사회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광인은 때로는 조롱받고 추방당하고 차별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회와 문화 안에 수용됐다. 심지어 광인의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성의 한계, 정상인이 못 보는 진실을 드러냈다. 17세기에야 광인이 빈민, 부랑자, 실업자 등과 함께 사회에서 배제되고 감금되기 시작했다. '공존하던 다름'이 구조적으로 격리해야 할 비정상으로 바뀌었다. 자칭 정상적인 주류 사회가 먼저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밖의 사람에게 말할 자격을 박탈하고 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푸코는 이를 '대감금의 시대'라고 불렀다. 비잔틴을 통해 유럽과 공존하던 러시아가 몽골 지배의 휴지기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귀환하려 했지만, 이는 야만이라는 굴레를 자초했을 뿐이다. 이 대감금의 시대는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조작한 루소포비아를 거쳐 지금은 나토(NATO)의 정상적 확대를 막는 살인적 광기에 대한 고립정책으로 진화됐다. 서방은 러시아의 말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설명한다. 마치 16세기에 몽테뉴가 유럽인들이 "자기 관습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야만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잘못을 보고 그 야만성을 끔찍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자신의 잘못에는 그토록 눈먼 것이 유감이다"라고 한 자성은 지금도 유효하다(『수상록』 중 「식인종에 대하여」).

RIO 29호는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의 치열한 몸부림을 다룬다. 「특집 기획」은 16세기부터 거듭되는 기술 차단에 맞서는 러시아의 기술 주권 역사를, 「역사 프리즘」은 본토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의 수수께끼를, 「크렘린 전망대」는 14세기 러시아의 성웅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유해가 만들어 내는 해방 서사의 현재적 의미를 소개한다. 이어 절대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의 출구 전략이 청년 세대의 조직화와 글로벌 연대(「이슈 진단」과 「RIO 초대석」), 자립적 통화와 통신 체제의 구축(「미디어 트렌드」),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구조적 연대(「경제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조명된다. 「예술 현장」은 '이해 가능한 타자'라는 한류의 창조적 출구를 통해 이 불통의 시대에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살리는 소중한 소통의 불씨를 엿보인다. RIO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소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30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9월호 No. 29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묵
디 자 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차례

각 차례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4 | 특집 기획
러시아 기술 주권 투쟁 500년사 이대식

상업혁명과 산업혁명에 걸쳐 현재까지 500년 간 반복된 러시아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고투의 패턴, 즉 지정학적 갈등과 고립 속에서의 기술 자립화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20 | 이슈 진단
2026년 두마 선거: 결집한 여당, 약진한 신인당 임명묵

전쟁 중 치러진 2026년 두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한 배경과 야권 3당의 위축, 청년층을 끌어들인 신인당의 약진이 보여주는 러시아 정치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29 | RIO 초대석
조토바 러시아청년청 부청장, 청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김현택

러시아 청년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레일라 조토바 청년청 부청장을 만나, 정부 차원의 차세대 인재 양성 노력 현황과 함께, 한·러 양국 청년 교류를 위한 제언을 듣는다.

42 | 크렘린 전망대
영웅의 부활: 돈스코이 유해 발견의 상징적 의미 라승도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 발견과 순회 전시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현대 러시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세주의의 부상 배경도 설명한다.

50 |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극동에서 더 넓은 아시아 경제 전략으로 라지 쿠마르 샤르마

2026년 9월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다뤄진 북극횡단운송회랑, 아세안으로의 다각화 정책, 기술 전면화 등 주요 현황 과제와 이슈, 기존 포럼과의 차별성을 조명한다.

57 | 역사 프리즘
두 이름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올가 댜트코

쾨니히스베르크가 프로이센의 요새 도시에서 러시아 월경지 칼리닌그라드로 변모한 과정을 살펴보고 전쟁과 복구가 도시 역사와 정체성에 남긴 의미를 되짚어 본다.

63 | 예술 현장
'이해 가능한 타자': 러시아 한류의 인기 비결 파벨 로디킨

'이해 가능한 타자'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근 러시아에서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한류의 인기 비결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다.

71 | 미디어 트렌드
'세 번째 화폐'와 5G: 금융·통신 인프라의 변화 김유정

디지털 루블과 5G의 본격 도입을 통해 나타난 러시아 금융·통신 인프라 변화와 기술 자립, 국산 장비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움직임을 살펴본다.

러시아의 기술 주권, 그 기원과 현황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기술혁명을 선도하기보다는 외부의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흡수·내재화하고 자국의 기술로 전환하며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이후의 제재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글로벌 기술 분업에 의존하던 발전 방식을 흔들며, 수입 대체를 넘어 '기술 주권'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이번 특집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해 러시아 제조업의 실제 기술 자립 수준, AI·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통해 러시아가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연재 순서

1. **러시아 기술 주권 투쟁 500년사**
2. 산업과 핵심 기술: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자립
3. 차세대 기술 주권: AI·반도체·컴퓨팅과 새로운 기술 경쟁
4. 에너지 기술 주권: 기술 자립에서 세계 시장 경쟁력으로

러시아 기술 주권 투쟁 500년사

이대식 RIO Institute 대표

들어가며: 1547년 뤼베크에서 2022년 모스크바까지

1547년 차르로 갓 즉위한 이반 4세(뇌제)는 작센 출신 상인 한스 슐리테에게 신성로마제국에서 기술자를 모집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슐리테가 모은 의사, 건축가, 광산기술자, 대포 주조공, 인쇄공 등 120여 명은 모스크바에 끝내 닿지 못했다. 발트해 길목을 쥔 리보니아 기사단과 한자 동맹(Hanseatic League) 도시들이 이들의 통과를 막았고, 슐리테는 뤼베크에서 투옥됐다.[1] 러시아가 겪은 최초의 '기술 수출 통제'였다. 그로부터 475년 뒤인 2022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대만이 반도체, 공작기계, 항공 부품의 대러 수출을 차단했다.[2] 이에 러시아 정부는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름만 새로울 뿐이다. 서방의 기술이 필요한데 서방이 그 기술을 막는 상황, 그리고 그 틈을 국가가 동원으로 메우는 방식은 16세기부터 러시아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변주됐다.

이번 9월호에서 시작하는 신규 「특집 기획」은 '러시아는 기술 주권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 "서방이 러시아에 필요한 기술을 막는 상황,
> 그리고 그 틈을 국가가 동원으로 메우는 방식은
> 16세기부터 러시아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변주"

질문에 답하는 네 편의 글을 연재한다. 첫 번째 연재 글은 해당 질문을 500년의 시간 선상 위에 펼쳐 놓는다. 논지는 세 가지다. 첫째, 러시아는 농업과 자원에만 기댄 주변부 국가가 아니었다. 상업혁명, 군사혁명, 1·2차 산업혁명, 원자력·우주 시대마다 서구의 기술혁명과 발을 맞췄다. 후발 주자였지만, 18세기 목탄제철, 1900년 전후 석유산업, 1950년대 원자력 발전과 우주 개발에서는 세계를 선도했다. 둘째, 기술 주권 문제는 경제적 후진성 자체보다는 지정학적 봉쇄와 군사적 패배를 계기로 매번 제기됐다. 예를 들면, 리보니아와 스웨덴이 발트해를 막았을 때, 크림전쟁에서 증기선과 강선총에 졌을 때,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산 부품이 끊겼을 때, 냉전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수출을 통제했을 때 매번 그랬다. 셋째, 러시아의 해법은 거의 언제나 같았다. 국가가 전략적 수요를 만들고, 외국 기술과 인력을 들여오며, 이를 소수의 전략 부문에 집중해 내재화했다. 이 방식은 전략 분야에서는 놀라운 도약을 낳았지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분석의 틀은 세 단계다. 도입은 외국의 제품·설비·지식·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다. 내재화는 국내 기술자와 기업이 그것을 제작·정비·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권화는 핵심 기술의 공급이 끊겨도 스스로 생산하고 개량하며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다. 여기에 두 개의 이론적 렌즈를 더한다. 알렉산더 거셴크론의 '후발성의 이점', 곧 후발국에서는 모자란 시장·자본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명제와,[3] 로렌 그레이엄이 말한 러시아의 '고독한 아이디어들', 곧 뛰어난 발명이 사회·경제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현상이다.[4] 앞의 명제는 러시아가 왜 도약할 수 있었는지를, 뒤의 명제는 왜 그 도약이 지속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

1. 16세기 이반 4세: 상업혁명의 입구를 둘러싼 최초의 기술 봉쇄

16세기 유럽 경제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북해로 옮겨가고 있었다. 안트베르펜과 암스테르담, 런던이 새로운 상업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됐고, 선박·화약·인쇄·광산 기술이 그 네트워크를 따라 확산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 흐름에 참여할 자원, 곧 모피·대마·아마·밀랍·타르를 가졌지만,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었다. 발트해 연안은 리보니아 기사단, 한자 도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스웨덴이 나눠 쥐고 있었고, 이들은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중개 이익과 함께 기술 이전의 통제권도 갖고 있었다. 슐리테 사건은 이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황제 카를 5세는 기술자 모집을 허가했지만, 리보니아는 기술자가 러시아의 군사력을 키우리라고 우려해 통로를 봉쇄했다.[5] 기술 이전의 성패를 결정한 것은 공급자인 신성로마제국의 의사가 아니라 통로를 쥔 중간 국가였다. 오늘날 제3국 경유 수출을 차단하는 2차 제재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같다.

이반 4세의 해법은 두 방향이었다. 하나는 발트해를 우회하는 북방 항로였다. 1553년 영국 탐험가 리처드 챈슬러가 백해에 도착하자, 이반 4세는 영국 상인들에게 무관세 교역과 내륙 통행의 특권을 주었고, 1555년 모스크바 회사가 출범했다.[6] 모스크바 회사는 홀모고리와 볼로그다에 밧줄 공장을 세워 러시아산 대마로 영국 해군용 삭구를 생산했다. 백해 항구 도시 아르한겔스크는 1584년 건설된 이후 한 세기 넘게 러시아의 유일한 대양 관문이 됐다. 봉쇄된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여는 방식은 이후 러시아 기술 주권사의 원형이 된다.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발트해 출구를 여는 것이었다. 1558년 리보니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도시 나르바를 점령했고, 1581년까지 이른바 '나르바 항로'를 통해서

모스크바 대포 주조소(좌)와 차르 대포(우) ⓒ 위키피디아

서유럽과 직접 교역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는 1560년대 말 엘리자베스 1세에게 서한을 보내, 모스크바가 지금까지 약했던 이유는 기술과 제도를 몰랐기 때문인데 나르바 교역이 계속되면 그 약점마저 사라지리라고 경고했다.[7] 폴란드와 스웨덴의 사략선은 나르바로 향하는 상선을 나포했다. 16세기판 수출 통제와 해상 차단이었다.

이반 4세의 성과는 작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대포 주조소(푸셰치니 드보르)는 이 시기 유럽 최대급의 청동 주조 역량을 갖췄다. 1552년 카잔 공략에서는 외국인 기술자의 지휘로 성벽 밑 갱도에 화약을 매설하는 공성술이 쓰였다. 대포 주조장 안드레이 초호프는 1586년 구경 890mm의 '차르 대포'를 주조했다. 1564년에는 이반 표도로프가 날짜가 명기된 러시아 최초의 인쇄본 『사도행전』을 출간했다. 그러나 한계는 더 컸다. 1581년 스웨덴이 나르바를 탈환했고, 1582~83년 강화로 러시아는 발트해 출구를 잃었다. 기술은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통해 들어왔고, 그 개인은 쉽게 떠났다. 표도로프는 모스크바의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리투아니아로 망명했고, 그의 인쇄 기술은 르비우와 오스트로흐에서 꽃피었다. 러시아가 처음 들여온 기술자가 러시아 밖에서 성과를 낸 이 사건은 이후 400년 동안 되풀이될 인재 유출의 첫 사례였다. 이반 4세 시대의 교훈은 명확하다. 러시아는 상업혁명에 대외 교역으로 연결될 수는 있었지만, 운송과 중개를 외국에 맡긴 연결만으로는 기술 주권에 이를 수 없었다.[8, 9] 모스크바 회사의 선박과 상인이 없으면 백해 항로도 멈췄다.

2. 17~18세기 표트르 1세: 패전이 강제한 수입 대체와 '우랄의 기적'

17세기 유럽에서는 '군사혁명'이 진행됐다. 상비군, 대량의 화기, 요새와 해군을 유지하려면

> "러시아가 처음 들여온 기술자가
> 러시아 밖에서 성과를 낸 이 사건은 이후
> 400년 동안 되풀이"

제철·화약·조선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관료제가 필요했다.[10] 30년 전쟁 이후 발트해의 패권국이 된 스웨덴은 이 모델의 전형이었고, 동시에 러시아의 주요 철·대포 공급원이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사실상 잠재적 적국의 금속에 기대고 있었다. 변화의 싹은 표트르 1세(대제) 이전에 이미 있었다. 1632년 네덜란드 상인 안드리스 비니우스는 차르의 특허를 받아 모스크바에서 약 190km 떨어진 도시 툴라에 수력 용광로 제철소를 세웠다. 1630년대 스몰렌스크 전쟁을 전후해서는 외국인 장교가 지휘하는 '신식 연대'가 편성됐고, 모스크바 교외에는 '네메츠카야 슬로보다'로 불리는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됐다. 당시 어린 표트르는 바로 이곳에서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출신 기술자·군인과 어울리며 항해와 축성을 배웠다.

1697~98년 표트르는 약 250명 규모의 '대사절단'을 이끌고 서유럽을 순방했다. 그는 암스테르담 동인도회사 조선소에서 목수로 일했고, 1698년 영국 뎁트퍼드 조선소에서 약 3개월 동안 조선 기술을 익혔다.[11] 귀국길에는 수백 명의 조선공, 항해사, 기술자를 고용해 데려왔다. 과거 이반 4세가 슐리테를 보내 기술자를 모으려다 실패했다면, 표트르는 차르 자신이 직접 가서 배우고 데려왔다. 그리고 표트르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갔다. 결정적 계기는 패전이었다. 1700년 나르바 전투에서 스웨덴의 카를 12세에게 대패하면서 러시아군은 야전 포병 대부분을 잃었다. 스웨덴산 철과 대포의 수입은 전쟁으로 끊겼다. 표트르는 1701년 교회와 수도원의 종 일부를 징발해 녹이라고 명했다. 이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툴라 제철소 창업자의 아들 안드레이 비니우스였다. 1701년 한 해에만 대포 약 300문이 새로 주조됐다. 공급이 끊긴 전략물자를 국내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체하는 방식, 곧 전시 수입 대체의 첫 번째 교과서적 사례였다. 동원은 곧 산업화로 이어졌다. 1701년 우랄의 네뱐스크에 국영 제철소가 세워졌고, 1702년 툴라의 무기 장인 니키타 데미도프에게 넘어갔다. 1703년 카렐리야에는 함대용 닻과 대포를 생산하는 페트롭스키 제철·대포 주조 공장이 세워졌다.[12] 1723년에는 우랄 광업 행정의 중심지로 예카테린부르크가 건설됐다. 1701년 항해학교, 1724년 과학아카데미가 설립됐고, 같은 해 보호관세가 도입됐다. 1721년 뉘스타드 조약으로 러시아는 마침내 발트해 출구를 확보했다. 이반 4세가 실패한 과제를 150년 만에 완수한 것이다.

표트르 개혁의 산업적 성과는 그의 사후에 더 분명해졌다. 우랄의 풍부한 철광석과 삼림, 수력, 그리고 공장에 귀속된 농노 노동이 결합하면서 러시아는 18세기 중엽 세계 최대의 선철 생산국이 됐다.[13]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은 러시아와 스웨덴의 봉철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반세기 전 스웨덴의 철에 의존하던 러시아가 산업혁명의 발상지에 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러시아가 서구 기술혁명의 '후발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선도국이 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이 성공은 목탄과 농노라는 특정한 조건에 묶여 있었다. 1780년대 영국에서 헨리

> "표트르 대제의 성과는 러시아가
> 서구 기술혁명의 '후발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 선도국이 된 첫 번째 사례"

코트의 교련법과 코크스 제철이 확산하자, 값싼 강제노동과 풍부한 목재에 기대던 우랄 제철은 기술 전환의 유인을 잃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세계 선철 생산 비중은 급락했다.[14] 이 역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알타이 지역 중심지인 바르나울의 기계공 이반 폴주노프다. 그는 1763년 2기통 증기기관을 설계했고, 1766년 완성된 기관은 제련소 송풍기를 수십 일간 구동했다. 제임스 와트의 개량 기관보다 더 앞선 성과였다. 그러나 폴주노프가 기관 가동 직전에 사망하자, 기관은 곧 멈췄고 이후 잊혔다. 물레방아와 농노 노동이 충분한 경제에서 증기기관은 필요하지 않았다. 발명은 있었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시장과 제도가 없었다. 그레이엄이 말한 '고독한 아이디어들'의 원형이다.[15]

3. 19세기: 크림전쟁의 충격, 철도 제국, 그리고 석유 1위 국가

1812년 나폴레옹을 물리친 러시아는 19세기 전반 유럽 최강의 육군국으로 자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있었다. 격차는 1853~56년 크림전쟁에서 드러났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증기 추진 스크루 군함과 사거리가 몇 배 더 긴 미니에식 강선총을 가져왔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범선은 싸워 보지도 못하고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자침했다. 1855년 러시아의 철도는 약 1,000km에 불과했고 모스크바 이남에는 철도가 없었다. 세바스토폴로 가는 보급품은 소달구지로 몇 주씩 운반됐다. 연합군이 영국에서 배로 보급받는 것이 러시아군이 자국 내륙에서 보급받는 것보다 더 빨랐다. 크림전쟁은 기술 후진성이 곧 안보 위

Закладка великой сибирской дороги.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е Высочество Государь Наслѣдникъ Цесаревичъ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ъ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отвозитъ тачку земли на полотно дорог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ѣ, 19-го мая 1891 г.

1891 시베리아횡단철도 착공식 ⓒ 위키피디아

> “19세기 말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실용 유조선을 진수하고 원유 파이프라인을 설계했고 열분해 공정을 개발하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

기라는 명백한 사실을 러시아 엘리트의 머릿속에 깊이 아로새겨 놓았다. 이후 반세기의 산업화는 이 패전에 대한 응답이었다.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해방을 시작으로 ‘대개혁’을 추진했다. 산업화의 축은 철도였다. 기술적 기반은 이미 있었다. 미론 체레파노프는 1833년 영국의 기술을 살펴본 뒤 1834년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제작했다.[16] 1837년에는 약 27.5km의 차르스코예셀로 철도가 개통했다.[17] 1851년 개통한 약 650km의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철도 노선은 미국인 기사 조지 휘슬러가 설계를 자문했고, 차량은 미국 기술자가 운영한 알렉산드롭스키 공장에서 만들었다. 도입과 내재화가 함께 진행됐다. 1892~1903년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는 이를 국가전략으로 체계화했다. 비테 체제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보호관세, 금본위제, 국가 주도 철도 건설이다. 1891년 관세는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설계에 참여한 강력한 보호관세였다. 주기율표의 발견자가 산업정책의 설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과학과 국가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보여준다. 1897년 금본위제 도입으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1891년 착공한 시베리아횡단철도는 1916년 러시아 영토만을 지나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상시 연결을 완성했다.[18] 1913년 러시아 철도망은 약 7만km에 달했고, 1890년대 공업 생산은 연평균 8% 안팎으로 성장했다. 거셴크론은 이 시기 러시아를 시장·자본·기업가 부족난을 국가가 대신한 후발 산업화의 전형으로 보았다.[19, 20]

당시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수용국을 넘어 선도국이 됐다. 가장 극적인 분야는 석유였다. 스웨덴계 노벨 형제가 바쿠에 세운 ‘브라노벨’은 1878년 세계 최초의 실용 유조선 조로아스터호를 진수했다. 같은 해 블라디미르 슈호프는 러시아 최초의 원유 파이프라인을 설계했고, 1891년에는 열분해(크래킹) 공정 특허를 받았다. 1898~1901년 러시아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1903년 ‘브라노벨’의 반달호는 세계 최초의 디젤-전기 추진 선박이 됐다. 전기와 통신에서도 러시아는 발명국이었다. 알렉산드르 로디긴은 1874년 탄소 백열전구 특허를 받았고, 파벨 야블로치코프의 아크등 ‘전기 촛불’은 1878년 파리 거리를 밝혔다.[21, 22] 알렉산드르 포포프는 1895년 전자기파 수신 장치를 발표했다.[23]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장한 알프레드 노벨의 사례는 러시아의 기계·군수 산업과 과학자 사회가 국제적 과학 환경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24] 1913년에는 이고리 시코르스키가 세계 최초의 4발 대형 항공기 ‘일리야 무로메츠’를 날렸다.

그러나 발명을 산업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취약했다. 로디긴은 국내 양산에 실패한 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며 특허를 제너럴일렉트릭에 매각했다.[25]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산업적 가치가 외국에서 실현됐다. 산업화의 자본도 상당 부분 외국에서 왔다. 석유, 금속, 전기

산업의 주요 기업은 프랑스·벨기에·영국·독일 자본이 지배했다. 취약성은 1차 세계대전에서 폭발했다. 1913년 러시아 수입의 약 절반은 독일에서 왔다. 전쟁이 발발하자, 공작기계, 화학 염료, 광학유리, 전기설비, 의약품 공급이 동시에 끊겼다. 1915년 러시아군은 심각한 포탄 부족에 시달렸다. 광학유리는 전쟁 중에야 국내 생산이 시작됐다. 핵심 투입재 하나가 끊기면 완제품 생산 전체가 멈춘다는 오늘날 공급망 문제와 똑같은 구조였다. 1917년 혁명 이후에는 시코르스키가 미국으로 망명해 헬리콥터 산업을 일으켰고, 블라디미르 즈보리킨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기술의 선구자가 됐다. 러시아가 길러낸 인재가 다시 러시아 밖에서 산업을 만들었다.

4. 소련: 공장을 통째로 사들인 추격, 그리고 우주로의 도약

혁명과 내전을 거친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에 둘러싸인 고립국이었다. 1927년 영국과의 단교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31년 2월 연설에서 소련이 선진국보다 50~100년 더 뒤처져 있으며 이 격차를 10년 안에 따라잡지 못하면 짓밟힐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뒤인 1941년 독일이 침공했다. 이 시기 기술 주권은 체제 생존의 문제로 정의됐다. 역설적으로 추격의 기회를 연 것은 서방의 위기였다. 1929년 대공황으로 일감을 잃은 미국 기업은 소련의 대규모 주문을 반겼다. 제재가 아니라 판매자의 필요가 기술 이전의 문을 열었다.

기반은 전력화였다. 1920년 러시아 국가전기화계획(GOELRO)이 수립됐고, 모스크바 지역 전력조직(MOGES)의 공급 전력량은 1921년 1억 3,330만kWh에서 1935년 37억 2,000만kWh로 약 28배 늘었다.[26] 1932년 완공된 드네프르 수력발전소는 미국인 기사 휴 쿠퍼가 자문했고, 발전기는 제너럴일렉트릭이 공급했다. 1차 5개년계획(1928~32)은 서방의 공장을 설계부터 통째로 도입했다. 1929년 5월 31일 포드와 체결한 기술지원 계약을 바탕으로 1932년 니즈니노브고로드(고리키) 자동차공장에서 포드 A형과 AA형 기반 생산이 시작됐다.[27]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 자료는 이를 비교적 성공적인 기술 이전 사례로 평가한다.[28] 디트로이트 출신의 건축가 앨버트 칸의 회사는 1930~32년 500곳이 넘는 소련 공장의 설계에 관여하고 수천 명의 소련 기술자를 훈련했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의 US스틸 제철소를 본떠 설계됐고, 스탈린그라드 트랙터 공장은 미국에서 제작된 설비를 분해·운송해 재조립했다. 앤서니 서튼은 이 시기 소련 주요 산업기술의 대부분이 서방에서 왔다고 분석했다.[29] 대가는 가혹했다. 수입 대금은 곡물 수출로 마련됐고, 1932~33년 대기근 속에서도 수출은 계속됐다.[30] 기술 주권을 향한 국가 동원이 사회에 어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성과는 전쟁에서 검증됐다. 1941년 하반기 1,500곳이 넘는 대형 공장이 우랄과 시베리아로 소개되어 수개월 안에 재가동됐다. 국산 설계인 T-34 전차는 독일군에 충격을 줬다. 다만 소련군의 기동력은 무기대여법으로 들어온 40만 대 안팎의 미국산 트럭과 지프에 크게 의존했다. 전략무기는 자립했지만, 병참 수단은 수입에 기댔다. 전후에는 복제와 독자 개발이 병행됐다. 1947년 투폴레프 설계국은 불시착한 미국 B-29 폭격기를 분해해 Tu-4를 만들었다. 1949년 원자폭탄 실험에는 첩보로 입수한 정보가 보탬이 됐다. 그러나 소련은 곧 추격을 넘

옵닌스크 원자력 발전소 기념 우표 ⓒ 위키피디아

어섰다. 1954년 칼루가주 옵닌스크에서 세계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됐다.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인류 최초 유인 우주비행은 소련이 기술혁명의 선두에 섰음을 세계에 알렸다.[31] 바소프와 프로호로프의 메이저·레이저 연구는 1964년, 알표로프의 반도체 이종접합 연구는 2000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32, 33] 1951년 완성된 MESM은 유럽 대륙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가운데 하나였고, 1968년 양산된 BESM-6은 당대 서방 컴퓨터와 겨룰 만했다.

서방은 1949년 COCOM을 만들어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다. 소련은 이에 두 가지로 대응했다. 하나는 독자 개발, 다른 하나는 복제와 첩보였다. 1960년대 후반 소련 지도부는 독자 컴퓨터 계열을 사실상 포기하고 IBM 시스템/360을 복제한 ES EVM(라드) 계열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1958년 건설이 시작된 '소련의 실리콘밸리' 젤레노그라드도 서방 반도체를 역설계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쏟았다.[34] 복제는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서방의 설계 주기를 영원히 몇 년 뒤에서 따라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첩보는 반대로 약점이 됐다. 1981년 국가보안위원회(KGB) 장교 블라디미르 베트로프가 프랑스에 넘긴 '페어웰 문서'는 서방 기술을 조직적으로 수집하던 KGB '라인 X'의 실체를 드러냈다. 1987년에는 일본 도시바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가 잠수함 추진기 가공용 공작기계를 COCOM 규정을 어기고 소련에 판 사실이 폭로됐다. 오늘날 러시아의 제재 우회 조달과 서방의 2차 제재 공방은 이 시대에 이미 원형을 갖추고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확산이었다. 우주·핵·방산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국가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역량이 민간 전자제품과 소비재의 경쟁력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1973년 이후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서방의 곡물과 설비를 사들이는 데 쓰였고, 스스로 개량할 압력을 오히려 낮췄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혁명에서 소련은 사실상 탈락했다. 과학의 선도, 전략 분야의 주권, 경제 전반의 경쟁력은 서로 다른 문제였다.

> "우주·핵·방산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국가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역량이 민간 전자제품과 소비재의 경쟁력으로 전환되지 않아"

5. 1991~2022년: 개방이 만든 의존, 2014년의 예고편

소련 해체는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 주권 문제를 '사라지게' 만든 시기였다. 냉전이 끝나고 COCOM이 1994년 해체되자, 서방 기술을 막는 벽이 없어졌다. 러시아는 세계화된 공급망에 편입됐고, 2000년대 고유가로 벌어들인 외화로 필요한 설비와 부품을 사들였다.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싸고 빨랐다. 그 사이 소련이 축적한 기반은 빠르게 침식됐다. 1990년대 러시아의 연구개발(R&D) 인력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 많은 과학자가 미국·유럽·이스라엘로 떠났다. 국방 주문이 끊긴 방산·전자 기업은 생존에 급급했다. 2007년 로스나노, 2010년 스콜코보 혁신도시 등 '현대화' 구상이 추진됐지만, 자원 수출에 기댄 경제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예외도 있었다. 러시아는 외국에서 등장한 인터넷을 활용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다. 얀덱스는 2024년 4분기 러시아 검색시장 점유율 66.4%(자사 Yandex Radar 측정치), 같은 해 연간 매출 1조 946억 루블을 발표했다.[35] 구글이 검색시장을 석권하지 못한 몇 개국 중 하나가 러시아다. 알고리즘·데이터·사업화를 국내 역량으로 내재화한 사례다. 그러나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과 그 플랫폼이 사용하는 반도체·서버의 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이에 따른 서방 제재는 2022년의 예고편이었다. 러시아는 '수입대체' 정책을 공식화했고, 결과는 분야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농업이었다. 2014년 8월 러시아는 서방산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맞제재를 발동했고, 보호된 국내시장에서 축산과 곡물 생산이 늘었다. 러시아는 2016년 무렵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됐다. 금융 인프라에서도 2014년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 SPFS, 2015년 국가 카드 결제 시스템 '미르'가 구축됐다. 이 두 인프라는 2022년 비자·마스터카드 철수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이후 국내 결제망을 지탱했다. 반면 군수 분야는 대체의 비용을 보여줬다. 러시아 해군의 신형 호위함용 가스터빈은 우크라이나의 조랴-마시프로엑트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4년 공급이 끊겼다. 러시아는 ODK-사투른에서 국산 터빈을 개발했지만, 아드미랄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의 후속함 건조는 수년씩 지연됐다. 2015년에는 프랑스가 러시아에 인도할 예정이던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의 계약을 취소했다. 결국 공급 단절은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교훈을 남겼다. 반도체와 공작기계에서는 의존이 오히려 심화했다. 국산 프로세서로 홍보된 바이칼과 엘브루스의 상당수는 대만 TSMC에서 위탁 생산됐다. 설계는 국산이었지만, 제조는 국외에서 이뤄졌다. 2022년 TSMC가 공급을 중단하자, 이 구조의 취약성이 곧바로 드러났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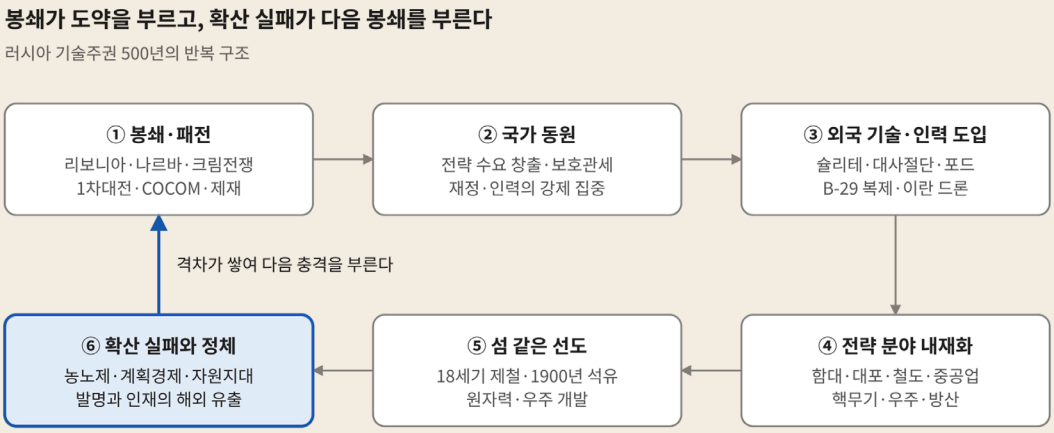
6. 500년을 관통하는 여섯 가지 특징

다섯 시기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반복 구조가 보인다. 외부의 봉쇄나 패전이 충격을 주고, 국가가 동원에 나서며, 외국의 기술과 인력을 들여와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내재화한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반열에 오르지만, 그 역량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한 채 정체하고, 누적된 격차가 다음 충격을 부른다.

[표 1] 시기별 기술 주권 문제의 계기·해법·성과·한계

시기	계기(지정학·경제)	러시아의 해법	대표 성과	한계
16세기 이반 4세	발트해 봉쇄, 슐리테 사건(1547~48)	백해 항로·모스크바 회사, 리보니아 전쟁	대포 주조소, 차르 대포, 최초의 인쇄본	나르바 상실(1581), 기술자 유출
1700~25년 표트르 1세	나르바 패전(1700), 스웨덴 철 공급 단절	대사절단, 교회 종 징발, 우랄 제철	18세기 중엽 세계 최대 선철 생산국	농노제 기반, 코크스 제철 전환 실패
1855~1914년 제정 말기	크림전쟁 패배, 영국 산업혁명	철도·보호관세·금본위제(비테 체제)	1898~1901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철도 약 7만km	외국 자본 의존, 1차 대전 부품 단절
1928~91년 소련	자본주의 포위, 독소전쟁, COCOM	5개년계획, 턴키 공장 수입, 복제·첩보	원자력 발전(1954), 스푸트니크(1957)	민간·전자 산업으로의 확산 실패
1991~2021년 체제 전환기	개방과 고유가, 2014년 제재	수입 구매, 2014년 이후 선별적 수입 대체	얀덱스, 농업, 미르·SPFS	반도체·공작기계 의존 심화, 연구 인력 반감

[그림 1] 러시아 기술 주권의 반복 순환



순환의 고리를 닫는 것은 ⑥이다. 전략 분야의 도약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 격차가 다시 쌓이고, 다음 봉쇄가 오면 러시아는 또다시 동원에서 시작해야 했다.

① 기술 주권은 언제나 '봉쇄'에서 시작됐다

러시아에서 기술 주권이 국가 의제가 된 계기는 내부의 혁신 욕구보다는 외부의 차단이었다. 1547년 리보니아의 통로 봉쇄, 1700년 나르바 패전과 스웨덴 철의 단절, 1855년 크림전쟁 패배, 1914년 독일산 부품 단절, 1949년 COCOM, 그리고 2014년과 2022년의 제재가 그랬다. 봉쇄가 없을 때, 러시아는 기술을 사는 쪽을 택했다. 모스크바 회사 시대의 백해 교역, 1990~2000년대의 개방이 그 예다. 흥미로운 규칙성도 있다. 충격 이후 전략 분야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년 안팎이 걸렸다. 나르바 패전(1700)에서 뉘스타드 조약과 우랄 제철(1721), 스탈린의 '10년' 연설(1931)에서 독소전쟁을 버틴 산업기반(1941), COCOM(1949)에서 스푸트니크(1957)까지가 그렇다. 전략 분야의 주권은 한 세대 안에 가능했다.

② 국가가 첫 번째 고객이자 조직자였다

표트르의 함대, 비테의 철도, 스탈린의 중공업, 소련의 우주·핵 계획은 모두 국가가 만든 수요였다. 거셴크론이 지적했듯, 후발국 러시아에서는 시장과 민간 자본이 할 일을 국가가 대신했다.[37] 이 방식은 목표가 명확한 전략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었다. 대신 기술의 방향이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수요에 맞춰졌다.

③ 기술은 사람을 타고 들어오고, 사람과 함께 나갔다

슐리테가 모집한 장인, 표트르가 데려온 조선공, 포드와 앨버트 칸의 엔지니어까지 러시아의 기술 도입은 언제나 사람의 이동이었다. 거꾸로 러시아가 길러낸 인재가 해외로 떠나면서 기술의 가치도 함께 빠져나갔다. 이반 표도로프(16세기), 로디긴(19세기), 시코르스키와 즈보리킨(1917년 이후), 1990년대 과학자, 그리고 2022년 정보기술(IT) 인력이 그랬다. 인재의 유출입은 러시아 기술 주권의 가장 민감한 지표였다.

④ 막힌 길 대신 새 길을 열었다

발트해가 막히면 백해로, 백해가 멀면 나르바로 갔다. 19세기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로 태평양을 향했다. 봉쇄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봉쇄를 뚫는 것만큼이나 우회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중국·중앙아시아 경유 병행수입,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북극항로(NSR)도 같은 계보 위에 있다.

⑤ 선도는 '섬'으로 존재했다

러시아는 후발국이면서도 목탄제철, 석유, 원자력, 우주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그러나 이 선도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폴주노프의 증기기관, 로디긴의 전구, BESM-6 컴퓨터는 주변 산업으로 퍼지지 못했다. 그레이엄은 이를 발명과 혁신을 구분하지 못한 러시아의 오랜 문제로 보았다.[38] 발명은 개인과 연구소의 역량이지만, 혁신은 자본·시장·법·기업이 결합해야 가능하다.

⑥ 한 시대의 성공 제도가 다음 시대의 족쇄가 됐다

우랄 제철을 세계 1위로 만든 농노 노동은 코크스 제철로의 전환을 막았다. 스탈린 공업화를 가능하게 한 계획경제는 1980년대 정보기술(IT) 혁명에 대응하지 못했다. 2000년대 경제를 지탱한 석유 수입은 스스로 만들 유인을 약화했다. 러시아의 기술사는 한 번의 성공 모델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다음 혁명을 놓치는 과정이 반복된 역사이기도 하다.

7. 오늘의 기술 주권 정책: 일곱 번째 순환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2022년 이후의 기술 주권 정책은 500년 순환의 일곱 번째 판본이다. 봉쇄가 계기가 되고, 국가가 수요자이자 투자자로 나서며, 외국 기술을 들여와 전략 분야부터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다. 그러나 봉쇄의 범위, 기술의 성격, 허용된 시간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불리하다. 우선 전쟁은 기술 내재화를 장기적 산업 고도화 목표에서 기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과제로 바꾸었다. 외국 제품을 쓰면서 국산을 점진적으로 키울 여유가 사

라졌고, 과제의 범위는 완제품에서 부품·소재·설계 소프트웨어·제조 장비로 넓어졌다. 국가는 수요자이자 투자자, 조정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23년 승인된 「2030년까지의 기술 발전 구상」은 핵심·범용 기술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자체 개발 경로를 강조한다.[39] 2024년 대통령령 제309호는 2030년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높이고, 자체 개발에 기반한 국산 첨단 제품·서비스의 소비 비중을 2023년 대비 1.5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40] 정부는 '기술 리더십 국가사업'에 3조 루블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41] 함대(표트르), 철도(비테), 중공업(스탈린)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 리더십 국가사업'이 국가 수요의 이름이 됐다. 다만 목표와 계획을 이미 확보된 역량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역사적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재현되는 곳은 국가가 유일한 고객인 분야다. 원자력은 1954년 옵닌스크 이래 연구·설계·제조·연료·운영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분야다. 로사톰은 2025년 말 7개국에서 대형 원전 22기를 건설 중이었고, 해외 포트폴리오에는 11개국의 대형 원전 35기와 소형 원전 6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42] 미국조차도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둘 만큼 이 분야의 주권은 실재한다.[43] 드론은 더 극적이다. 2022년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136 설계를 도입했고, 이듬해부터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에서 '게란'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이후 생산은 빠르게 국산화하고 규모가 커져 원설계국 이란의 생산량을 넘어섰다. 외국 설계의 도입, 국가 주문에 따른 대량생산, 원설계국 추월로 이어지는 흐름은 표트르의 우랄 제철, 스탈린의 포드 공장과 같은 궤적이다. 러시아는 전시 동원형 기술 내재화에서 여전히 강하다.

반면 과거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 영역도 분명하다. 첫째, 봉쇄의 범위가 다르다. 과거에는 봉쇄하는 나라가 있으면 파는 나라도 있었다. 스웨덴이 막으면 네덜란드와 영국이, 유럽이 외면하면 대공황기의 미국이 팔았다. 지금은 미국·EU·일본·한국·대만이 한꺼번에 공급을 막고, 대안은 사실상 중국뿐이다. 그 결과가 '의존 대상의 교체'다. 2023~24년 러시아 신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1932년 포드 계약이 대량생산 체계 자체를 이전받는 거래였다면, 오늘의 중국산 자동차는 완제품이나 조립용 부품을 사 오는 거래에 가깝다. 2022년 부품 공급이 끊겼을 때 라다 그란타가 잠김 방지 제동장치(ABS)와 에어백 없이 생산된 장면은 공급 단절이 곧 기술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둘째, 기술의 성격이 다르다. 18세기의 용광로나 1930년대의 자동차 공장은 한 번 도입하면 국내에서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첨단 반도체는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일본의 소재,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대만의 위탁생산(파운드리)이 연결된 생태계의 산물이며, 어느 한 나라도 단독으로 재생산하지 못한다. 미크론은 자사를 러시아 유일의 90nm급 미세 전자 양산 기업으로 소개했고,[44] TSMC는 2025년 4분기 2nm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45] 공정명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격차는 분명하다. 2024년 젤레노그라드에서 조립된 첫 국산 노광장비의 목표 공정은 350nm였다. 러시아는 성숙 공정으로 필수 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최첨단 인공지능(AI) 연산 기반까지 자립하기는 어렵다. 셋째, 시간이 다르다. 과거의 '20년 규칙'은 평시 또는 전쟁 이전의 준비 기간을 전제로 했다. 지금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재화해야 한다. 고등경제대학교(HSE)의 2026년 9월 29일 실험적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연구개발비는 약 2.5조 루블, GDP

의 1.17%(기존 통계 기준 1%)였다.[46] 2030년 2% 목표까지는 거의 두 배 확대가 필요하다. 2022년 러시아를 떠난 IT 인력은 정부 추산으로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인재 유출이라는 오래된 약점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재현됐다. 민항기는 그 중간에 있다. 2025년 10월 국산 PD-14 엔진과 다수의 국산 시스템을 탑재한 두 번째 수입 대체형 MS-21 시험기가 50분간 비행했다.[47]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시험 비행, 인증, 안정적 양산, 경제적 운항은 각각 다른 단계다. 크림전쟁 이후 철도가 기관차 제작(1834)에서 대륙 횡단망(1916)까지 80년이 걸렸듯, 첫 국산 제품과 산업의 주권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다.

분야별 기술 주권 단계와 전망

분야	현재 단계	역사적 선례	전망
원자력	주권화	옵닌스크(1954)	높은 자율성과 수출 경쟁력 유지 가능성 큼
방산·드론	내재화, 일부 주권화	교회 종 징발(1701), 공장 소개(1941)	전시 대량생산은 가능, 전자부품 수입 의존은 잔존
플랫폼·금융 인프라	내재화	얀덱스, 미르(2015)·SPFS(2014)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가능, 서버·반도체는 해외 의존
민항기	내재화 진행 중	일리야 무로메츠(1913), 소련 항공산업	인증·양산·정비 체계 구축에 장기간 소요
자동차	도입(중국) 의존 심화	포드 계약(1929~32)	의존 대상 교체 위험, 조립과 내재화의 구분 필요
반도체	성숙 공정 일부 내재화	젤레노그라드 복제 전략(1960년대~)	최첨단 공정 자립은 가시권 밖

500년의 역사는 러시아가 전략 분야의 주권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기술 경쟁력으로 확산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가장 큰 위험은 공급 대체를 기술 내재화로, 국내 조립을 주권화로 착각하는 것이다. 성패는 다음 다섯 가지 질문으로 가늠할 수 있다.

1. 공급처가 바뀌어도 생산이 지속되는가, 아니면 중국이라는 새 공급자에 묶이는가.
2. 국내에서 설계·제작·개량하는 능력이 쌓이는가, 아니면 조립에 그치는가.
3. 인재가 순유입되는가, 아니면 표도로프에서 2022년까지 이어진 유출이 계속되는가.
4. 보호된 시장 안에서도 가격·품질·생산성이 개선되는가. 보호와 장기 지원은 초기 내재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는 격차를 고착시킨다.

5. 전시에 공급 확보에 성공한 산업이 평시에도 스스로 개선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는가. 이는 표트르의 우랄도, 스탈린의 중공업도 끝내 넘지 못한 문턱이다.

맺으며: 외국 기술로 배워온 나라가 외국 기술 없이 배워야 하는 역설

1547년 뤼베크에 발이 묶인 장인들에서 2022년 TSMC의 공급 중단까지, 러시아는 서방이 기술을 막을 때마다 국가의 동원으로 답해왔다. 그 답은 여러 차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웨덴의 철에 의존하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영국에 철을 수출했고, 크림전쟁에서 증기선에 진 나라가 반세기 뒤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으며, 1931년 '50~100년 뒤처졌다'라던 나라가 26년 뒤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그 도약은 늘 전략 분야의 섬에 머물렀고, 섬을 대륙으로 잇는 확산에는 실패했다. 오늘 러시아는 외국 기술을 통해 학습해 온 국가가 외국 기술 접근이 제약된 채 학습과 생산을 지속해야 하는 역설에 놓여 있다. 역사는 러시아가 원자력과 방산에서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준다. 동시에 반도체와 민간 산업에서는 '봉쇄-동원-섬-정체'의 순환을 끊을 새로운 해법, 곧 국가의 동원 능력에 민간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검증을 결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준다. 러시아는 500년 동안 그 해법을 찾지 못했다.

---

1 Richard Hakluyt. *The Principal Navigations, Voyages, Traffiques and Discoveries of the English Nation*. 1598~1600; Isabel de Madariaga. *Ivan the Terrible*. Yale University Press, 2005.

2 영국 정부. "러시아 제재 우회 대응: 수출업자 지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ering-russian-sanctions-evasion-and-circumvention/countering-russian-sanctions-evasion-guidance-for-exporters

3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4 Loren Graham. *Lonely Ideas: Can Russia Compete?*. MIT Press, 2013.

5 Richard Hakluyt. 앞의 책; Isabel de Madariaga. 앞의 책.

6 워싱턴대학교. "앤서니 젠킨슨의 부하라 여행 기록(1558~60)과 해설." https://depts.washington.edu/silkroad/texts/jenkinson/bukhara.html

7 Richard Hakluyt. 앞의 책; Isabel de Madariaga. 앞의 책.

8 워싱턴대학교. 앞의 글.

9 네덜란드 해양박물관. "플류트선, 17세기의 화물선." https://www.hetscheepvaartmuseum.nl/collectie/artikelen/701/het-fluitschip-vrachtschip-van-de-17e-eeuw

10 Geoffrey Parker. *The Military Revolution: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1 Historic England. "뎁트퍼드 조선소."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the-list/list-entry/1213984

12 러시아 대통령도서관. "페트롭스키 제철·대포주조 공장." https://www.prlib.ru/history/1901936

13 Arcadius Kahan. *The Plow, the Hammer, and the Knout: An Economic History of Eighteenth-Century Russ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14 Arcadius Kahan. 앞의 책.

15 Loren Graham. 앞의 책.

16 러시아 중앙은행. "체레파노프 증기기관차 기념주화." https://www.cbr.ru/cash_circulation/memorable_coins/coins_base/ShowCoins/?cat_num=5111-0449

17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INION). "러시아 철도사 자료." https://reportcollection.inion.ru/reports/download/?reportId=446

18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INION). 앞의 글.

19 Alexander Gerschenkron. 앞의 책.

20 Theodore H. Von Laue. *Sergei Witte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Rus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21 러시아 대통령도서관. "알렉산드르 로디긴."
https://www.prlib.ru/Great_Russia/outstanding_scientists_XX/Lodygin

22 모스에네르고 박물관. "야블로치코프의 특허."
https://www.mosenergo-museum.ru/Museum/News/23487/?ELEMENT_ID=23487&PAGEN_2=2

23 러시아 역사문서 전자도서관. "1895년 물리학회 회의록."
https://docs.historyrussia.org/ru/nodes/496741

24 노벨재단. "알프레드 노벨 연표." https://www.nobelprize.org/alfred-nobel/

25 러시아 대통령도서관. "알렉산드르 로디긴." 앞의 글.

26 모스에네르고 박물관. "GOELRO 계획의 역사."
https://www.mosenergo-museum.ru/History_of_Mosenergo/Historical_Review/19034/

27 러시아 특수목적차고 박물관. "자동차산업사: 니즈니노브고로드."
https://gon-museum.ru/map-auto-industry/1917-1941/nizhniy-novgorod

28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 "Issues in East-West Commercial Relations."
https://www.jec.senate.gov/reports/96th%20Congress/Issues%20in%20East-West%20Commercial%20Relations%20%28927%29.pdf

29 Antony C. Sutton. *Western Technology and Soviet Economic Development*. 전3권. Hoover Institution Press, 1968~73.

30 Robert C. Allen. *Farm to Factory: A Reinterpretation of the Soviet Industrial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31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개발의 역사."
https://starchild.gsfc.nasa.gov/docs/StarChild/space_level2/travel.html

32 노벨재단. "1964년 노벨물리학상."
https://www.nobelprize.org/prizes/physics/1964/summary/

33 노벨재단. "2000년 노벨물리학상 발표."
https://www.nobelprize.org/prizes/physics/2000/press-release/

34 Chris Miller.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Scribner, 2022.

35 얀덱스. "2024년 4분기·연간 실적 발표."
https://ir.yandex.ru/financial-releases?report=q4&year=2024

36 Chris Miller. 앞의 책.

37 Alexander Gerschenkron. 앞의 책.

38 Loren Graham. 앞의 책.

39 러시아 특허청. "「2030년까지의 기술발전 구상」 설명." 2023.5.25.
https://rospatent.gov.ru/ru/news/koncepciya-tehnologicheskogo-razvitiya-do-2030-goda-25052023

40 수다크트(sudact.ru). "러시아 대통령령 제309호(2024.5.7.) 법문."
https://sudact.ru/law/ukaz-prezidenta-rf-ot-07052024-n-309/

41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국가사업 재정 계획."
https://www8.minobrnauki.gov.ru/press-center/news/novosti-ministerstva/92109/

42 로사톰. "2025년 실적." 2026.8.31.
https://rosatomnewsletter.com/ru/2026/08/31/росатом-итоги-2025-года/

43 미국 에너지부. "국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https://www.energy.gov/ne/domestic-low-enriched-uranium-supply-chain; 미국 에너지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금지 예외 지침."
https://www.energy.gov/ne/russian-uranium-ban-waiver-guidance

44 미크론. "2025년 신제품 61종 양산 개시."
https://mikron.ru/news/sdelano-na-mikrone-61-novoe-izdelie-osvoeno-v-seriynom-proizvodstve-v-2025-godu/

45 TSMC. "2nm 기술."
https://www.tsmc.com/chinese/dedicatedFoundry/technology/logic/l_2nm

46 고등경제대학 통계·지식경제연구소(ISSEK). "연구개발비 실험적 추계." 2026.9.29. https://issek.hse.ru/news/1204839038.html

47 러시아 교통부. "MS-21 시험비행." 2025.10. https://www.mintrans.gov.ru/eye/press-center/branch-news/8047

2026년 두마 선거
결집한 여당, 약진한 신인당

임명묵 국제정치평론가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러시아 11개 시간대에 걸친 국내 투표소와 152개국 333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5년 만에 치러지는 국가두마(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이하 두마) 총선을 포함하여 10개 연방주체 지역 수장을 선출하고 39개 연방주체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였다. 특히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5선을 안겨준 대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연방 단위 선거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전시에 시행된 총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러시아 여론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계기판으로 주목받았다.

러시아 선거는 '쇼'에 불과한가?

물론 러시아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으며,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오랜 역사를 지닌 자유주의 야당 야블로코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사법부 판결로 두마 비례대표 명부에서 제외되자, 국내외에서는 반전(反戰) 성향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 전체 450석 가운데 349석이라는
>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제기됐다. 선거 결과 역시 이런 문제 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지역구 225석 가운데 209석을 차지했으며, 비례대표에서는 58.21%를 득표해 225석 중 140석을 얻어 전체 450석 가운데 349석(약 77.6%)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1]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과 전자투표 신뢰성 문제, 체첸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99.85%로 당선됐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 역시 ‘푸틴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연출된 쇼’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 선거를 푸틴 정부의 지지 연출용 쇼로만 여긴다면, 러시아에서 선거가 수행하는 기능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여타 선거 권위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선거 자체를 민의 파악을 위한 신호 장치로 활용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투표 추이를 통해 정책 노선에 대한 사회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또 지역별로도 점검할 수 있다. 게다가 선거는 국가가 사회를 어느 정도로 동원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호기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처럼 여러 기능이 선거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도 투표 결과를 아무 숫자로 채워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6년과 2021년 두마 선거 결과는 러시아 선거 역시 실질적 민심 정보를 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두 선거에서 투표율은 47.88%에서 51.72%로 상승했지만, 여당 득표율은 54.20%에서 49.82%로 낮아졌다. 이런 변화는 2014년 크림 병합 이후의 애국주의적 결집이 2018년 연금 개혁과 장기적인 소득 정체, 정부 피로감 속에서 지지 침체로 바뀌어 간 흐름을 반영한다. 크렘린과 중앙 언론은 물론이고 각 지역 지도자나 행정 당국 역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진지한 자료로 취급하며, 결과를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한다. 그런 차원에서 2026년 두마 선거 역시 ‘비난과 조롱’ 이전에 ‘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러시아당으로 결집한 표심

위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2026년 두마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직전 선거인 2021년과 이번 선거를 대비하자면, 전체 투표율은 51.72%에서 59.8%로, 여당 득표율 역시 49.82%에서 58.21%로 상승했다. 2026년 초 러시아에서 큰 불편과 논

‘당신의 목소리가 러시아의 힘!’을 구호로 내건 2026년 국가두마 선거 공식 로고 ⓒ 위키피디아

>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격이 촉발한 위기 의식, 중앙 정부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가 여당에 ‘결집 효과’를 안겨주었을 수 있어”

란을 빚은 텔레그램·왓츠앱 규제가 시행됐고, 여름에는 우크라이나가 후방 정유시설을 타격해 연료 위기가 촉발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사회 통제의 심화와 피로감이 러시아 시민들의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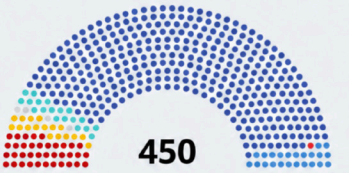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한 설명이 많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패배라는 ‘최대주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푸틴 정부가 설정한 최소한의 목표만큼은 달성하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소극적 지지’는 러시아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여론이 여당과 정부 지지로 반영됐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선거 당일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국민에게 위기의식과 결집 효과를 만들어냈으리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둘째, 5년 차에 접어든 전쟁이 러시아 정치·경제를 바꾼 것도 중요하다. 전시 동원과 계약병 임금, 지방 군수산업체에 집중되는 투자는 중앙 정부가 지역의 일상생활과 발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편이 중앙으로부터의 자원 이전과 투자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물론 투표 결과를 온전히 민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위로부터의 국가 개입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크렘린이 푸틴 정부가 국민의 지지 위에 서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투표율과 여당 득표율을 일종의 KPI(핵심성과지표)로 삼아온 것과 관련이 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이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으로 국내 정치를 총괄하던 2011~16년에는 여당 성적이 부진한 지역의 부지사들을 따로 불러 성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2016년 세르게이 키리옌코가 그 자리를 이어받은 뒤에는 선거마다 전국 단위의 목표 수치를 정해 지역에 전달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2018년 대선의 ‘투표율 70%, 득표율 70%’, 2021년 총선의 ‘45/45’, 2026년 총선의 ‘투표율 50%, 여당 득표율 55%’가 대표적이다.[2]

구체적인 공식 확인은 없지만, 지역 정부가 중앙에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관공서와 국영기업 등의 직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리라는 관측도 많다.[3]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원격전자투표가 투표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2021년 7개 지역에 적용됐던 원격전자투표가 이번 두마 총선에서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3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전자투표는 신기술을 통해 정치 참여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선거 감사가 어렵고 조작 위험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공산당 등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종합하면, 지역의 동원과 중앙의 기술이 결합한 이번 선거에서 ‘100% 깨끗한 민의’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중앙 정부의 지지 기반과 사회 침투력,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정당	정당명부			지역구			총 의석	+/−
	득표수	%	의석	득표수	%	의석		
통합러시아당	39,118,497	59.01	140			209	349	+25
러시아연방공산당	9,051,776	13.66	32			5	37	−20
자유민주당	5,970,578	9.01	21			2	23	+2
신인당	5,253,202	7.92	19			0	19	+6
공정러시아당	3,589,806	5.42	13			4	17	−10
사회정의연금당	1,286,329	1.94	0			0	0	0
녹색당	761,542	1.15	0			0	0	0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555,943	0.84	0			0	0	0
로디나	469,972	0.71	0			1	1	0
직접민주주의당	231,011	0.35	0			0	0	신규
야블로코						0	0	0
무소속						4	4	−1
합계	**66,288,656**	**100.00**	**225**			**225**	**450**	**0**

2026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결과. 세부 수치는 본문에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위키피디아

노쇠하고 위축된 야권 3당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야권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으며, 그 표심의 변화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정당 체제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1993년부터 전국 비례대표 명부에 5%(2007·2011년에는 7%)의 봉쇄 조항을 도입했다. 모든 정당은 이 문턱을 넘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 두마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부터 2021년 신인당이 진입하기 전까지, 통합러시아당 외에 전국 조직과 두마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공정러시아당 정도로 좁혀졌다. 이들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주요 국가 정책에서는 여당 노선에 대체로 협조했으므로, 통합러시아당과 함께 일종의 4당 체제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야당은 전부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할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은 옐친 시기에 각각 좌파와 우파 반대파를 대표한 뼈대 있는 정당이었다. 이 두 정당은 처음부터 관제 야당이었다기보다는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가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으로 국내 정치를 담당하던 2000년대에 체제 안으로 사후적으로 포섭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편, 공정러시아당은 2006년 크렘린 주도로 여러 군소 정당이 합당해 설립된 상대적으로 신생 정당이다. 그러나 여당 노선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순수한 관제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3대 야당의 목적과 기능을 더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다. 3대 야당은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의 노선이나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 이를 통해 명시적인 반정부 성향을 띨 때 발생하는 위험은 최소화된다. 동시에 야권 3당은 각자 유권자 집단별로 관심을 두는 분야를 맡아 여당과

협상하고, 때로는 지역 행정부와 의회에서 신임을 얻어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나름의 공간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은 통합러시아당이 대표하는 보수·애국 성향의 중산층 다수와는 다소 구별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유권자 집단을 대변한다. 공산당은 소련 체제에 대한 향수가 짙은 노년층과 좌파 성향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자유민주당은 안보에 관심이 많은 강경 애국주의 성향의 남성층, 특히 중앙아시아계 이민에 민감한 층을 대변한다. 공정러시아당은 사회복지와 문화적 보수주의에 민감한 고령 여성층의 목소리를 담는다.

따라서 야권 3당은 크렘린이 온전히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만 보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변하는 유권자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를 정부·여당의 정책과 조율하게 하는 신호기로서 가치를 보존하려면 야권 3당에도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선거 결과의 특징을 꼽는다면, 그것은 야권 3당 전체의 지지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데 있다. 정당명부 득표율 기준으로 공산당은 13.34%(2016년), 18.93%(2021년)에서 13.47%로, 자유민주당은 13.14%, 7.55%에서 8.88%로, 공정러시아당은 6.22%, 7.46%에서 5.34%로 변했다. 세 당의 합산 득표율은 2016년 32.70%, 2021년 33.94%에서 2026년 27.69%로 크게 낮아졌다. 2021년과 비교해도 공산당과 공정러시아당은 하락했고, 자유민주당은 전쟁 장기화와 이민 문제 등 상대적으로 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소폭 반등에 그쳤다.

야권 3당의 위축은 최근 러시아 정치의 맥락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야권 3당이 진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체제의 보조 정당 위치에 머무른다면,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단지 여당을 뽑으면 될 일이고,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대안 정당을 뽑거나 아예 투표를 거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14일 두마 선거를 앞두고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청년축제에서 연설하는 레오니트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대표
ⓒ 자유민주당 공식 웹사이트

> “야권 3당(공산당·자유민주당·공정러시아당)은 지도부 노쇠화, 신규 의제 부재, 차별성 확보 실패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어”

결정적으로 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은 30년 이상, 공정러시아당도 이미 2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1993년부터 공산당을 이끌어온 겐나디 주가노프와 공정러시아당 창당을 주도하고 2013년부터 다시 당대표를 맡고 있는 세르게이 미로노프처럼 지도부 역시 정당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새로운 얼굴이나 노선도 선명하지 않은 채 같은 의제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권 3당이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과거 지향적 애국주의로 수렴했다는 사실도 중요했다. 그 결과 공산당과 공정러시아당은 과거 체제에 대한 기억이나 향수가 약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데 고전했고, 소련식 수사와 미학도 한 정당의 전유물이 더는 아니게 되면서 상대 당의 유권자를 서로 잠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도 공산당은 2021년 전국 조직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선거 감시에 나서 야권 지지자를 흡수하고 항의 투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야권 지지자 일부가 투표를 포기하고, 늘어난 투표가 여당 지지로 향하면서 공산당은 오히려 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예외적인 반등을 보인 정당은 자유민주당이었다. 2022년 4월 창립자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가 사망한 뒤 1968년생 레오니트 슬루츠키 체제로 세대교체를 이뤘고, 보수 포퓰리즘으로 노동 계층과 청년층 일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다크호스’: 신인당의 부상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선거에서 야권 전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 기존 야권 3당 체제를 뚫고 공정러시아당을 제치며 4위로 올라선 다크호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신인당(New People)이 그 주인공이다. 크렘린의 움직임에 주로 주목하는 국외 시각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변화하는 러시아 사회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인당은 2020년에 창당돼 2021년 두마 선거를 통해 원내에 데뷔한 신생 정당이다. 이 시기가 연금 개혁 이후 푸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침체하고, 특히 자유주의 성향의 청년과 도시 중산층의 이탈이 두드러진 때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신인당은 처음부터 청년층 포섭을 목표로 삼았다. 반정부 성향

청록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신인당 공식 로고 ⓒ 위키피디아

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대변할 정당이 없어 정치에 관심을 끊은 이들을 끌어들여, 그 목소리를 정부와 두마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렘린, 특히 국내 정치를 관장하는 키리옌코 제1부실장이 관여했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키리옌코는 2025년 3월 창당 5주년을 맞은 신인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신인당은 2022년 개전 이후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고, 주요 국가 결정에 협조했지만, 두마 부의장을 지낸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를 중심으로 협상과 조기 종결을 다른 원내 정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기도 했다(2024년 대선에 출마한 다반코프의 구호는 '평화와 협상, 단 우리의 조건으로'였다).[4] 키리옌코 역시 신인당이 일부 지역에서는 야당으로 활동하면서도 핵심적인 국가 현안에서는 대통령과 연대하고 주요 결정을 지지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5] 그런 점에서 신인당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띠면서도 어디까지나 '체제 내 정당'의 틀 안에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인당이 노쇠한 러시아 정당 체제에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대선에서 다반코프는 3.85%를 얻어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를 따돌리고 공산당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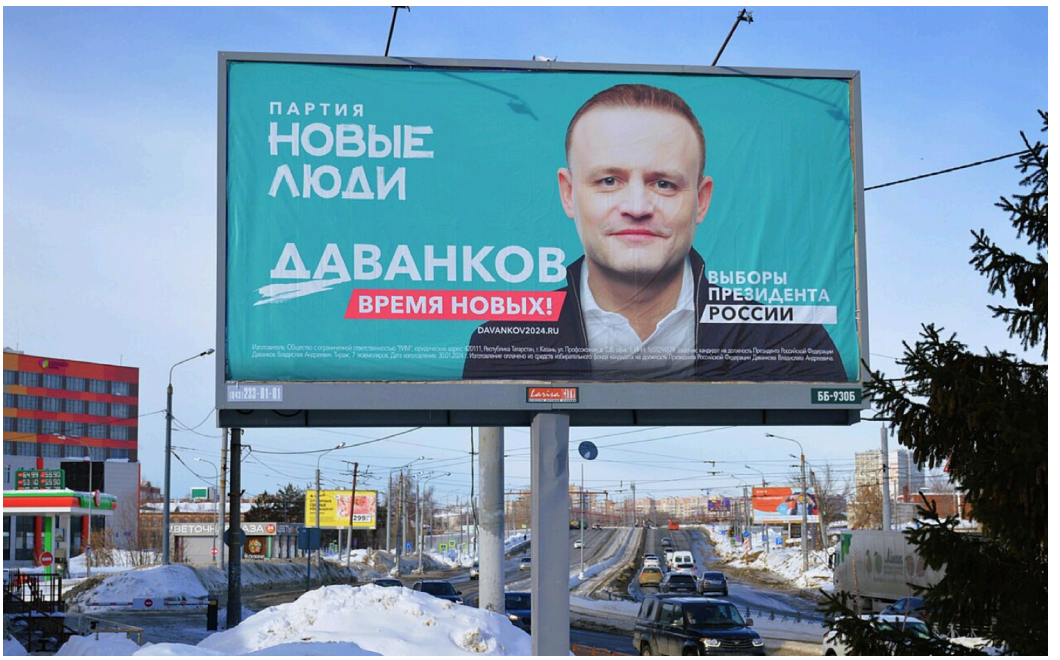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2026년 선거를 앞두고는 신인당이 자유민주당을 넘어 원내 제3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여기에 비례대표 명부에서 제외된 야블로코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겹쳤다. 많은 러시아 국민이 불편을 호소한 인터넷 규제를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비판한 것도 당세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선거 직전인 8월 31일~9월 6일에 시행된 프치옴(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신인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10.4%와 9.9%를 기록해 치열한 3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6]

실제 선거 결과는 '물이 반쯤 찬 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인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7.82%를 득표했는데, 이는 10% 안팎을 득표해 제3당까지 넘볼 수 있다던 선거 전의 기대를 밑도는 성과였다.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역시 신인당과 유사한 정책 비판 노선을 채택해 변별력이 줄어들었고, 통합러시아당이 결집 효과로 상당한 이득을 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인당이 거둔 성과가 작은 것도 아니었다. 다른 정당들이 정체나 쇠퇴로 평가받은 반면, 신인당은 전체 투표율과 여당 득표율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도 득표율이 5.32%에서 7.82%로 약 1.5배 늘었고, 이에 따라 전체 득표수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원격전자투표에서는 13.04%를 얻어 통합러시아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열성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도시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모스크바에서는 10.46%를 얻어 공산당(10.6%)과 사실상 2위를 다퉜고, 노보시비르스크의 도심 지역에서는 17~18%대를 기록하기도 했다.[7]

그리고 사실 전국 투표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지역 의회 진출에 있었다. 필자는 선거를 사흘 앞둔 9월 15일 예카테린부르크 중심가에서 가두 홍보에 나선 신인당의 두 청년 당원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신인당의 전략과 기대가 무엇인지 묻는 필자의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했다.

"전국 선거에서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은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



2024년 대선 당시 카잔 거리에 걸린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신인당 후보의 선거 광고판. 당시 선거에서 다반코프는 '평화와 협상, 하지만 후퇴는 없이, 우리의 조건으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위키피디아

국 선거만큼이나 각 지역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해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들의 답변에 부합하게 신인당은 지역 의회 선거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옴스크주(9.80%)와 모스크바주(9.28%) 의회 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을 앞섰다. 신인당 측 발표에 따르면 신인당이 진출한 지역 의회 개수도 이번 선거로 45곳에서 63곳으로 늘었다.[8]

엄청난 '돌풍'까지는 일으키지 못했고 아직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지만, 신인당의 조용한 약진은 러시아 정치를 바라볼 때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신호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두마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지지율 상승을 확인했지만, 기존의 노쇠한 4당 체제로는 포괄되지 않는 청년층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새로운 정치·행정·문화 엘리트를 충원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신인당이 거둔 양호한 성적은 러시아 정부가 이 과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공산당, 자유민주당, 공정러시아당이 각기 다른 형태의 과거 지향적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사이에 신인당은 마치 메드베데프 시기를 연상시키는 '현대화', '정상성', 기술 낙관주의, 창조 산업 등의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크렘린의 정치 기획이 '전쟁'이나 '이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외부의 관찰보다 훨씬 더 다각적임을 보여

> "야권 3당이 과거 지향적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반면, 신인당은 현대화, 기술 낙관주의, 창조 산업 등을 내세우고 있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번 선거 결과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후의 정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는 듯하다. 즉 전쟁 국면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집을 끌어내되, 전쟁 이후의 관계 정상화와 청년층 확보, 엘리트 세대교체를 위한 플랫폼은 여당과 신인당을 통해 마련해 두는 그림이다.

당연하게도, 크렘린 내부의 미로를 끝없이 들여다보거나 자극적인 추측을 좇는 것만으로는 이 기획이 어떻게 짜여 있고 얼마나 잘 작동할지 파악할 수 없다. 그보다는 두마에서 지역 의회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정당 정치와 민심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야권 4당'이 된 정당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여당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방에서 어떤 인물이 중앙으로 이동하는지, 청년층의 도시 생활 의제가 실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가 관전 지점이다. 특히 2030년 대선과 2031년 두마 선거를 앞둔 시기까지 신인당에서 어떤 지도자가 부상하고 조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지, 여당과 차별화되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선거와 정치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색깔과 맥락을 지니며, 러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에서 선거는 쇼에 불과하다'라는 피상적 문구를 넘어 러시아 정당 정치를 깊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러시아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번 두마 선거로 형성된 새로운 정치 지형을 계속 추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1 이 글에서 인용한 2026년 두마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의석·투표율과 지역 수장 선거 결과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ЦИК)의 최종 집계를 정리한 아래 기사를 따랐다.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Госдуму в цифрах и графиках."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6/09/26/1232008-itogi-viborov-gosdumu

2 "В Кремл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целев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на выборы в Думу."
https://www.rbc.ru/politics/25/02/2026/699f09989a794738e816bb5b;

"Будущему президенту нужен рекорд."
https://www.gazeta.ru/politics/2017/02/20_a_10536029.shtml

3 예컨대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투표 첫날 자당 선거감시센터에 특정 날짜의 투표 강요 등을 포함한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Явились — не поленились."
https://www.kommersant.ru/doc/8970080

4 "Даванков выступил за «мир и переговоры на наших условиях» по Украине."
https://www.rbc.ru/politics/15/02/2024/65ce48129a79474048a7a8c3

5 "«Новые люди» переизбр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обновили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5/03/20/1099044-novie-lyudi-pereizbrali-predsedatelya-i-obnovili-sostav

6 "Рейтинги Презид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reitingi-prezidenta-pravitelstva-i-politicheskikh-partii-11092026

7 "ЦИК России подвел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IX созыва."
https://asafov.ru/news/cik-rossii-podvel-itogi-vyborov-v-gosudarstvennuiu-dumu-ix-sozyva;

"КПРФ и «Новые люди» фактически поделили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думских выборах в Москве."
https://moskvichmag.ru/?p=524991;

"ЕР, КПРФ и «Новые люди» вошли в первую тройку по итогам выборов в Новосибирске."
https://kommersant.ru/doc/8973881

8 "«Не только лайки в соцсетях»: «Новые люд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ыборов."
https://rtvi.com/news/ne-tolko-lajki-v-soczsetyah-novye-lyudi-podveli-itogi-vyborov/

조토바 러시아청년청 부청장
청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무더위가 극성이던 지난 8월 초 러시아연방청년청(Rosmolodezh') 부청장 일행이 방한했다. 2025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국제청년축제에 RIO 편집진이 참가한 인연을 계기로, RIO Institute가 초청해서 방한 일정를 마련했다.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러시아 측 청년정책 전문가팀은 체류 중 한국의 청년정책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또 유관 부서를 방문했다.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 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유익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러시아청년청은 연방 행정 체계 내 독립 조직이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청년과 아이들'을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 부처의 존재감이 뚜렷하다. 초중등 교육, 과학·고등교육, 문화·예술 관련 중앙 및 지방 부처는 물론 수많은 시민단체와 협력하면서, 젊은 세대의 자기실현과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지도자 발굴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상설 교육 센터들, 그리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직접 창의적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청장의 얘기를 듣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는 러시아의 노력이 탄탄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은 향후 한·러 양국 간 청년 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소감과 함께, 일회성이 아닌 과제 해결형 공통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지속적 소통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8월에 있었던 대담과 9월 중 추가로 받은 서면 인터뷰 결과를 「RIO 초대석」 9월호에 소개한다. 참고로 2026년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청년축제에는 서울 방문 시 부청장이 약속했던 대로 한국에서 청년 스무 명과 언론인 두 명이 참가했다.

광화문 RIO Institute에서 인터뷰 중인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 ⓒ RIO

한국에 처음 왔다. 방문 전 상상하던 한국과 짧은 기간 체험한 서울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나?

오기 전에는 첨단 기술이 매우 발달한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나라로 상상했다. 실제가 그랬다. 그런데 서울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다른 섬세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대하는 한국인의 자세, 교육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같은 측면이다. 특히 현대성이 역사적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런 특징은 책이나 영화, 소셜 미디어 등으로는 제대로 느낄 수 없고, 현지를 직접 찾아 관찰해야 감지할 수 있다. 또 여러 분야의 한국인들과 만나는 동안, 상대방을 향한 진지한 관심, 존중, 환대, 그리고 서로 알아가려는 열린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기뻤다. 통역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번 첫 방문에서 발견한 한국은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나라였다.

바쁜 일정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갖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화유산을 아주 소중하게 보존하는 한편,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박물관의 전시 방식이 신선했다. 한국 전통 예술 중에서 특히 장식·공예 분야, 건축, 서예, 직물·문양 작업 등을 자세히 관람했는데, 매우 절제되고 섬세하면서도 다층적 의미를 내포한 고유의 미학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예술이다. 고대의 모티프가 디자인, 패션, 음악, 영화 같은 현대 예술 형식으로 새

> “한국 전통 예술 중에서 특히 장식·공예 분야, 건축, 서예, 직물·문양 작업 등을 자세히 관람했는데, 매우 절제되고 섬세하면서도 다층적 의미를 내포한 고유의 미학이 특히 인상적”

> “빅토르 최는 자유와 성장, 내면의 힘, 삶을 바꾸려는 열망 등을 노래로 표현하며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을 뛰게 만든 독창적 예술가”

롭게 태어나 울림을 주는 사례가 그렇다. 러시아에서도 현재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문화유산이 외딴 박물관 공간에 박제된 유물로만 남아 있지 않고 살아 숨 쉬는 영감의 원천으로 다양한 세대의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서예 작품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기회가 되면 작품을 한 점 구해서 집에 걸고 싶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이 있다. 이들과 직접 교류한 적이 있는가? 유명한 빅토르 최도 있는데, 러시아인의 기억 속에 이 인물이 선명하게 각인된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 내 한국계 커뮤니티 대표들과 교류한 적이 있고, 오래전 고향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평범한 고려인들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도 있다. 한국계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의 고유한 부분을 간직하면서 러시아 국가의 공동 역사 속에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은 모범적 사례다. 빅토르 최라는 예술가는 내가 보기에 민족적 소속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특별한 현상이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에서 문화적 기억의 일부로 남아 있다. 빅토르 최는 자유와 성장, 내면의 힘, 삶을 바꾸려는 열망 등을 노래로 표현하며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을 뛰게 만든 독창적 예술가다. 인종의 경계를 넘어 담백하고 솔직한 음악 언어로 수많은 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빅토르 최의 경우에서 문화는 국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중인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과 국제청년축제사무국 알렉세이 스타노니스 팀장 ⓒ RIO

러시아는 드넓은 영토에 무수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부청장께서는 북캅카스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출신으로, 유럽과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엘브루스산 기슭에서 태어나 자랐다. 산악 지대 사람들에게 평야 지역 거주자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

> “전통적으로 북캅카스 사람들은 가족, 어른에 대한 존중, 손님 환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등을 소중하게 여겨”

는 정신적 가치는 무엇인가?

북캅카스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고지대 풍경 © photocentra.ru

사람들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문화 간 상호 작용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산악 지대 거주자와 평야 지역 사람들을 딱 잘라 구별하는 게 맞는지 모르나, 현저한 특징은 분명히 있다. 전통적으로 북캅카스 사람들은 가족, 어른에 대한 존중, 손님 환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등을 소중하게 여긴다. 산악 지대 삶의 특성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태어난 장소, 자기 뿌리에 대한 기억,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그렇다. 강인함, 상부상조 정신, 세대 간의 끈끈한 유대감도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다. 오늘의 북캅카스는 이런 전통적 가치와 현대 세계를 향한 개방성이 상호 작용하며 변화 중인 흥미로운 공간이다. 수많은 절경과 유적을 간직한 관광 명소라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루간스크인민공화국 교육부 차관으로 교육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근무 중 특별한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교육 시스템이 단지 교육 과정과 행정 절차의 집합체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게 평소의 소신이다.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어린이, 학생, 교사, 멘토 등 사람이 중심에 있고, 시스템에 주어진 임무는 수혜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장차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루간스크인민공화국 교육 체계를 러시아의 교육 체계에 통합하는 과제에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 교육 기준, 교육 과정, 수업 과정의 조직, 교원 양성 및 지원, 교육 인프라 개발, 그리고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러시아 동년배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작업이었다.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수자와 교육 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청년들의 진로 지도를 통해 교육을 개별 학생의 경력 개발과 연계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학생들에게 러시아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러시아청년청에서 부청장께서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연방 청년청에 합류하기 전에 청소년 정책 및 교육 프로젝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청년청에서 맡고 있는 일은 이런 경력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은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자본 집약적인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년과 아이들' 과제의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팀에 부여된 핵심 과제는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의 지원 체계를 향상 발전시키는 일이다. 여기에는 보조금 공모전,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사회·교육·문화·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 창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청년 기금 사업'은 방방곡곡의 청년 수천 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기 플랫폼이다. 멘토링과 창의적 활동부터 학술 연구,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청년 개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모든 젊은이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되도록 다수의 청년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러시아청년청 로고 © fadm.gov.ru

러시아청년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소개 책자의 일부 © fadm.gov.ru

청년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아이디어 구상 및 구체화 단계에서 지원 예산 확보와 프로젝트 실행까지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구체적 결과로 끌어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문서와 지표만 다루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단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팀은 청년 사회에 실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

> "청년 정책이 문서와 지표만 다루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단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팀은 청년 사회에 실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회는 무엇인지 등을 계속 파악해야 해"

지,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회는 무엇인지 등을 계속 파악해야 한다.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역 현장의 동료, 전문가, 파트너, 청년 세대와의 대화 및 소통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다.

러시아 정부가 '청년과 아이들'로 명명된 국가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쏟는 배경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청년과 아이들'을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했고,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매년 젊은 세대를 위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아이들'은 러시아의 미래에 관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구상의 일환이다. 청년과 아동은 국가적 관심의 우선순위이고, 이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국가의 미래에 대한 핵심적 투자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세대(러시아에서 청년은 35세까지 포함)에 속하는 전문가, 기업가, 과학자, 창작자들은 몇 년 후면 경제, 과학, 문화, 사회 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국가에 부여된 임무는 이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아이들'은 양육과 교육, 학술, 창작, 전문 역량 개발, 자원봉사, 창업, 국제 협력 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연방 청년청은 초중등 교육, 과학·고등교육, 그리고 문화 관련 연방 및 지역 차원 부처들, 6~18세 대상 사회운동 단체인 '첫 번째의 운동', 대통령 플랫폼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러시아 '지식' 협회 같은 시민 단체와 협력하면서 젊은 세대의 자기실현 및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미래 러시아의 주역을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와 수단을 누리고 있고, 또한 국가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과제의 첫 단계는 성공한 셈이다.

청년 정책 업무는 연방 정부 산하 여러 부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러시아 청년청이 맡은 특별한 역할은 무엇인가?

러시아청년청은 국가의 청년 정책 실현을 업무의 최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연방 기관이다. 물론 청년 정책은 그 특성상 어느 특정 부처만의 과제일 수 없다. 청년은 학생인 동시에 미래의 전문가, 기업가, 자원봉사자, 가족의 일원, 시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청은 수많은 관련 부처, 시민 운동 단체, 유관 조직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소통과 협업 과정이 없으면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 요컨대 청년

인터뷰 중인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 ⓒ RIO

> “청년청의 고유한 역할은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아우르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개척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이런 움직임에 수월하게 접근한 청년들이 구체적 성공 사례를 쌓아가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

청의 고유 역할은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아우르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개척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이런 움직임에 수월하게 접근한 청년들이 구체적 성공 사례를 쌓아가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024년부터 러시아는 국제청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러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 이번 9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청년축제가 갖는 차별성은?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을 러시아가 맞이하는 행사는 전에도 있었다. 1957년, 1985년, 2017년에 세계청년학생축제가 러시아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소치 소재 교육복합 공간 ‘시리우스’에서 190개국 2만 명의 청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청년축제를 러시아 주관으로 새롭게 열었다. 행사 종료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축제 참가자들은 문화 간 교류와 열린 대화를 위한 이런 행사의 지속적 개최를 요청했고, 대통령이 여기에 호응함으로써 자기 나라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 후 매년 러시아에서 국제청년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2천 명의 참가자가 볼가강 연안의 고도 니즈니노브고로드에 모였고, 올해는 우랄 지역 중심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191개국 출신 1만 명의 젊은 지도자가 한데 어울리는

2026년 국제청년축제에 등장한 선글라스를 쓴 대형 푸시킨 두상 © tass.ru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청년축제 마무리 기자회견.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세르게이 키리옌코 대통령행정실 수석부실장이고,
그 오른쪽은 그리고리 구로프 러시아청년청 청장이다. © wyffest.ru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청년축제 폐막식 © ria.ru

대규모 국제청년축제가 막을 올렸다. 특히 '러시아 민족 통합의 해'로 지정된 2026년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수 세기 동안 러시아 영토 내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공동의 미래를 건설해 온 수많은 민족이 각자의 전통과 경험을 나누는 행사로 기획됐다. 여기에 더해 서로 소통하며, 첨단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지구촌 젊은이들이 실현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에너지 넘치는 공간이 탄생했다.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 문화 환경을 갖춘 대규모 산업 도시이자 고등교육 중심지인 예카테린부르크는 축제 기간에 '국제 청년의 도시'로 변했고, 국외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러시아를 체험하고, 러시아 친구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누렸다. 특히 이번 축제의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 수준과 적극성을 많이 고려했고, 초청받은 청년들은 창조 산업, 공공 행정, 과학·교육, 스포츠, 기업가 정신, 미디어, 디지털 기술, 시민 활동 분야에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함께 추진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이었다. 그 덕분에 이번 축제는 세계적 의제에 대한 추상적 논의 중심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에 참가자들이 몰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에너지, 물류 등에서 러시아가 달성한 첨단 성과와 선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관람하는 기회도 가졌다. 주최 측은 단편적 사례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부스 배열을 지양하고, 대신 러시아 주요 기업, 과학 연구 센터들이 이룬 성과들을 문화, 교육, 건강부터 도시 환경, 물류, 기술,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작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축제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스포츠 경기, 문화 공연, 자원봉사, 현장 견학 등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방한 중 한국의 정치인, 청년정책 담당 기관, 러시아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났다. 양국 간 청년 교류에서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있을까? 또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할 분야가 있다면……

> “우선 양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교육 교류, 청년 포럼, 언어 연수 및 창작 프로그램 참여, 공동 미디어 제작 프로젝트,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우선 양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교육 교류, 청년 포럼, 언어 연수 및 창작 프로그램 참여, 공동 미디어 제작 프로젝트,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음악, 디자인, 영화, 디지털 콘텐츠, 패션, 현대 기술 같은 창조 산업 분야의 협력에도 양국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런 교류 사례들이 축적된 다음 단계에서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 창업·기술 협력 프로젝트, 연구 이니셔티브,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같은 지속 가능한 방향의 프로젝트들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는 양국 간 청년 협력이 일회성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만났다. 어떤 인상을 받았나?

한국 방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러시아를 향한 학생들의 관심이 참으로 진지했고, 러시아어와 역사에 대한 이해 수준도 상당했다. 한국 학생들은 오늘의 러시아, 러시아 젊은이들의 삶과 직업 선택의 기회 등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적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면 마음이 설렌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 젊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기에 그렇다. 역사나 문화 공부도 중요하나 어떤 나라를 깊이 이해하려면 또래 동료와 꾸준히 교류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개인적 경험과 상호 존중 사례가 시간을 두고 쌓일 때 청년 세대 간 교류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특강에서 질문에 답하는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
ⓒ RIO

러시아에서 최근 창조 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화두다. 이 분야가 러시아에 왜 중요한가?

창조 산업은 인간의 재능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는 분야 중 하나다. 러시아는 방대한 문화적·역사적 유산, 재능 있는 수많은 인재, 전문 인력 양성에 특화된 우수 교육 기관 등

> “창조 산업 분야에서 각국이 보유한 고유의 강점과 독창적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국제 협력이 중요하며,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쓴 한국의 사례가 러시아에 흥미로운 건 당연”

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나 독창적 재능이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 감독, 음악가, 개발자, 건축가, 콘텐츠 제작자가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교육, 인프라, 팀 구성 가능성 등이 전제돼야 하고, 또 자신의 구체적 성과를 대중과 시장에 선보일 무대와 플랫폼도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상 단계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결과물 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벌써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창조 산업 분야에서 각국이 보유한 고유의 강점과 독창적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국제 협력이 중요하며,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쓴 한국의 사례가 러시아에 흥미로운 건 당연하다.

청년청은 러시아 전역에 중점 분야의 청년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들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한국의 청년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방 차원의 교육 센터 6개와 지역 차원의 능력 개발 센터 12개가 운영 중이다.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청년미디어발전센터 ‘슘’, 캄차카 소재 청년환경센터 ‘에코시스테마’ 같은 청년청 산하 교육 센터들은 연중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 프로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연방 차원의 행정·경영 전문교육 센터 ‘세네즈’ © senezh.rsv.ru

> “어떤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강의만 듣지 말고,
>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직접 만들어,
> 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체에
> 도전해 보는 방식이 바람직”

그램을 추천하기보다는 각 센터가 집중하는 분야를 살펴본 다음 본인의 관심 주제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한다. 어떤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강의만 듣지 말고,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직접 만들어 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체에 도전해 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존 프로그램의 관찰자로 참여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국제적 환경에서 실천해 보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참여 가능 분야는 경영, 스타트업 창업, 사회적 프로젝트, 창조 산업, 청년 포럼, 미디어 프로젝트, 국제 교류 관련 등 아주 다양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다. RIO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고 노력 중인데, 젊은 세대가 친근감을 느낄 러시아 관련 대중적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양국 젊은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로 발신하는 활동을 해 보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고 유망한 프로젝트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공식적 정보나 제도권 언론 외에, 블로거, 음악가,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콘텐츠 공동 제작은 문화적 대화를 위한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복잡

인터뷰 중간에 RIO 인쇄본을 들고 포즈를 취한 레일라 조토바 ⓒ 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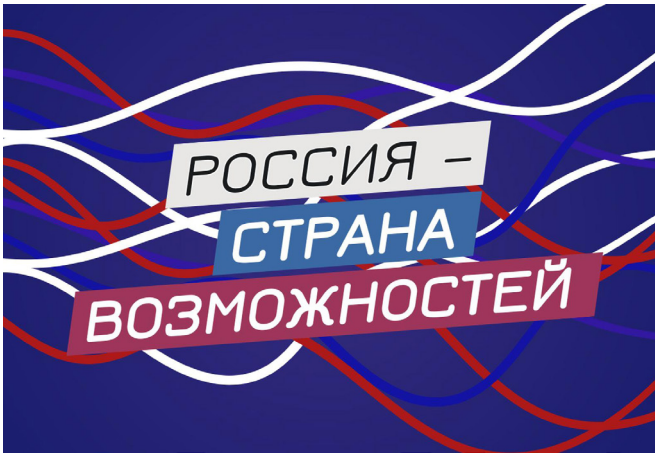
한 형식을 취할 필요 없이, 짧은 영상, 다큐멘터리, 음악을 통한 협업, 젊은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등이면 충분하다. 청년 주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전과 지원 체계가 러시아에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목표 설정이 선명하고, 또 협업을 통해 결과에 도달하는 프로젝트라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러시아 젊은이들 앞에 대두된 문제들과 유사한가?

두 나라 젊은이의 고민거리에 공통점이 많다.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고,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기를 원한다. 또 전 세계 청년들은 급속한 기술 변화, 치열한 경쟁, 끊임없이 배우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등에 직면해 있다. 나라마다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특징이 있어서 구체적인 환경과 관심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분야의 국제적 소통은 흥미롭고 유익하다. 각자의 경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 앞에 놓인 도전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며, 그래서 우리가 청년 세대의 국제 교류에 주목하고 있는 거다.

국제청년축제 프로그램에서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라는 표현을 봤다. 개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자산이 된 요소들,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든다면……

재능 있는 인재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대통령 프로그램의 명칭이 바로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다. 젊은 세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목표 지향성, 근면과 인내, 책임감, 호기심,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등을 꼽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겁내지 않는 도전 정신이 아닌가 싶다. 완벽하게 계획된 개인 차원의 직업 경로는 애초에 없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야 할 순간도 있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과학, 기술, 고등교육 분야의 관리자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이런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재능 있고 의욕이 넘치는 전문가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사다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프로그램에 진입한 젊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해당 분야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경험을 쌓고, 멘토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더 비중 있는 자리로 이동해 갈 기회를 누리게 된다. 오늘의 러시아에서는 재능과 노력, 이 두 요소를 겸비해야만 비로소 관리자의 길에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포스터 © unecon.ru

들어설 수 있다. 개인의 잠재력이 교육, 인턴십, 보조금, 프로젝트 참여, 멘토와의 만남, 전문적인 환경에 진입할 기회 등을 누리면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가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각 단계에서 내 능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 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기회의 나라'라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다가올 기회를 위한 준비를 당장 시작하라고 말하곤 한다.

어렵사리 앞길을 탐색 중인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걷는 자가 길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완벽한 조건, 충분한 지식, 자신감, 누군가의 지원 등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움직일 때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첫걸음을 겁내면 안 된다. 앞에 있는 길 전체를 몰라도 괜찮다. 방향을 잡았으면 걸음을 떼야 한다. 그래야 기회와 도움이 나타나고, 새로운 나의 길이 보인다.

한국에 다시 오면 어디를 둘러보고 싶은가?

반드시 자녀들과 같이 올 거다. 빡빡한 공식 일정 대신, 자유로운 여행자로 한국적 삶의 리듬을 몸으로 느껴보고,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의 이모저모를 관찰할 것이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공간, 서울의 강북과 강남, 전통 공예품 공방과 지방 도시도 가보고 싶다. 현대 한국의 창의적 공간, 대학 캠퍼스, 청년 커뮤니티, 기술 및 문화 프로젝트 수행 공간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중에 두 나라 청년 세대 간 협력 사업의 좋은 아이디어도 문득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RIO

인터뷰를 마치고 정동 러시아 공사관 터 인근에서 ⓒ RIO

영웅의 부활
돈스코이 유해 발견의 상징적 의미

라승도 RIO Institute 연구위원

'동화 같은' 발견

2026년 8월 19일 《타스통신》 등 러시아 주요 언론 매체는 1380년 9월 쿨리코보 전투에서 마마이 칸이 이끄는 몽골·타타르군과 싸워 대승해 민족 영웅 반열에 오른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1350~89)의 유해가 모스크바 크렘린의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1] 관련 기사에 따르면, 돈스코이 유해는 표트르 1세(대제) 이전 시대의 군주들이 안장된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에서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긴급 보수 공사 도중 발견됐다.[2] 대성당 바닥 석판이 급격히 가라앉으면서 대공들의 묘실 위 비석들이 붕괴할 위험이 생기자, 이를 철거하고 새로 복원하는 공사가 지난여름에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돈스코이 대공과 그의 아버지인 이반 2세 대공, 우글리치 공후 드미트리 질카가 안치된 것으로 표기된 흰색 석관 세 기가 드러났다. 이때 돈스코이의 석회암 석관 뚜껑에서 가로로 갈라진 균열이 발견되자, 뚜껑이 깨져 대공의 유해 위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박물관 직원들이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에게 석관 개봉을 건의하고 허락받았다. 이에 따라 돈스코이의 석관이 조심스럽게 개봉됐고, 그 결과 놀랍게도 왼쪽 발꿈치뼈를 제외하고 그의 유해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교회 측은 곧이어 진행된 사료 고증과 매장지의 고고학적 양상, 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관에 안치된 인물이 돈스코이 대공이 확실하다고 밝혔다.[3]

이처럼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가 그의 사망 후 6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 “키릴 총대주교는
> 돈스코이의 석관 개봉을 온갖 적으로부터
> 러시아 땅의 보호와 연결 지어”

채 발견되자, 당시 대성당 현장에 있었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문화 담당 보좌관은 이 발견을 가리켜 “거의 동화 같다”라고 표현했다. 곧이어 이 말은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이나 핵심 내용 중 일부로 널리 회자했다. 이는 중세 시대 러시아 민족 영웅의 유해가 수백 년 세월에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일이 전혀 예상치 못했고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메딘스키는 돈스코이 유해 발견이 “동화 같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4] 이와 함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역사학자이기도 한 메딘스키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돈스코이’[5]의 유해가 현시점에 발견된 것이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쿨리코보 전투에서 마마이 칸의 군대를 물리치고 외세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서 중대한 출발점을 마련한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가 온전하게 발견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집단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돈스코이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러시아 사회 일각에서 유해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 러시아군을 지켜주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돈스코이 유해 발견이 “예상치 못했고,” “동화 같고”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은 러시아 교회와 정치 지도자가 관련 뉴스 보도 전후 이틀을 사이에 두고 유해 발견 현장을 각각 방문해 예배한 사실에서도 잘 뒷받침된다. 먼저, 키릴 총대주교는 8월 18일 고위 관료 및 학자들과 함께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을 방문했고, ‘신실한 성자’인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가 안치된 석관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대공의 유해 일부를 모신 성물함을 축성했다.[6] 특히, 곧이어 진행된 연설에서 키릴 총대주교는 돈스코이의 석관 개봉을 온갖 적으로부터 러시아 땅의 보호와 연결 지었다.[7] 지난 9월 2일 밝힌 담화에서도 그는 돈스코이가 러시아 영토 수호의 상징 가운데 하나라고 상기했다.[8]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해 발견 뉴스가 나온 직후 8월 20일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을 방문하여 돈스코이 유해가 안치된 석관을 직접 둘러봤고, 파벨 대주교가 키릴 총대주교를 대신해 집전한 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돈스코이의 유해 발견이 “기적 같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독보적 성격을 지적하기도 했다.[9] 이와 함께, 9월 7일 ‘모스크바 시의 날’을 맞아 세르게이 소뱌닌 시장과 만나 축하하는 연설 석상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구원과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성자의 유해”[10]가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에 있다고 밝히면서 돈스코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뒤늦은 시성과 상징적 부활

앞서 얘기했듯이, 러시아 역사에서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4세기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공으로, 1380년 돈강 유역 쿨리코보 평원에서 킵차크한국의 마마이 군대를 대파하여 몽골·타타르 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내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을 방문하여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가 안치됐던 석관을 둘러보고 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

배에 맞서 대규모 승리를 최초로 거둔 호국 영웅으로 기억된다. '네바강의 알렉산드르'를 뜻하는 알렉산드르 넵스키처럼, 오늘날 그가 '돈강의 드미트리'를 뜻하는 드미트리 돈스코이로 불리게 된 것도 돈강 근처 쿨리코보 전투에서 거둔 그의 역사적인 승리에서 유래했다. 특히, 돈스코이는 쿨리코보 전투의 승리로 그로부터 100년 후 '몽골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당시 블라디미르, 수즈달, 랴잔,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등 여러 공국으로 흩어져 분열돼 있던 루스 땅을 모스크바 공국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도 러시아 영토 통일과 민족 통합의 상징적 인물로 높이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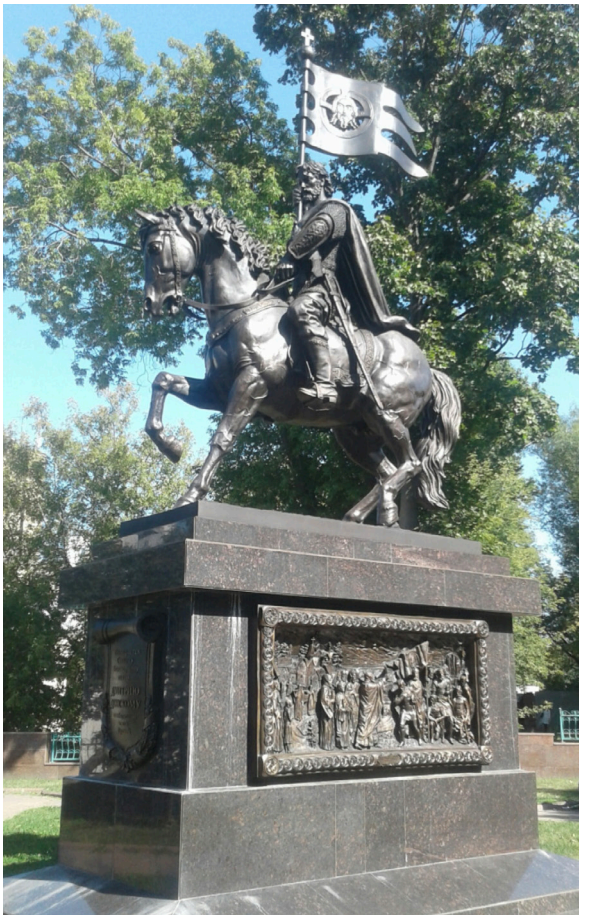
한편, 돈스코이는 그의 증조부인 알렉산드르 넵스키 등 다른 중세 전사 성자들과 달리 사후 러시아 정교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시성되지 못했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그와 교회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돈스코이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키프리아누스 대주교 임명을 거부하며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대주교와 갈등을 자주 빚었던 일련의 중대한 사건이 그의 경건한 이미지를 해치는 부정적 요인이 됐다.[11] 바로 이런 배경에서 돈스코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주로 영웅적인 통치자나 모범적인 군주 등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12] 이는 1263년 사망 직후부터 지역 성인으로 추앙됐고, 1547년 전 러시아 차원에서 성인으로 추대됐던 알렉산드르 넵스키를 둘러싼 역사적 기억과 분명하게 대비된다. 결국, 돈스코이는 사망 이후 거의 600년이 지난 1988년 '루스 세례 1,000주년' 기념제를 맞아 러시아 정교회에서 비로소 시성됐다. 이에 앞서 1980년 소련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쿨리코보 전투 600주년' 기념제를 공동 주최했다. 이는 한편으로 8년 후 이뤄진 돈스코이 시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로부터 30여 년 전인 2차 세계대전 당시 '돈스코이 전차' 제작을 위해 협력한 정교회와 소련군의 공동 노력을 상기하기도 했다.

> “돈스코이는 1988년 소련 붕괴 직전에 뒤늦게 시성됐지만,
> 소련 해체 직후 탄생한 새로운 러시아에서
>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부활”

이렇듯, 돈스코이는 1988년 소련 붕괴 직전에 뒤늦게 시성됐지만, 곧이어 소련 해체 직후 탄생한 새로운 러시아에서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부활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혼란과 무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이 절실히 필요했다. 특히, 새로운 민족 정체성 모색과 정립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민족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룩한 강력한 통치자의 영웅적 이미지를 자국 역사에서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블라디미르 대공, 알렉산드르 넵스키, 드미트리 돈스코이 같은 중세의 민족 영웅들이 상징 정치의 차원에서 러시아 국민의 역사적 기억과 의식 속에 하나둘씩 소환되기 시작했다.[13] 예를 들면, 1992년 모스크바시 남쪽의 한 거리가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로’로 명명됐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에는 같은 지역에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로’ 지하철역이 개통했다. 흥미롭게도 중세 러시아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지하철역은 모스크바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전국에 걸쳐 거리와 광장, 공원 등 수많은 장소에 돈스코이의 이름이 부여됐다. 특히, 2002년에는 러시아 최대 핵잠수함이 ‘드미트리 돈스코이’로 명명됐고, 2004년에는 ‘성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 훈장도 제정됐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에는 돈스코이 대공 동상이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제막됐다. 끝으로, 돈스코이는 소련 시대 역사 교과서에서 쿨리코보 전투와 관련해서만 언급됐지만, 새로운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서는 루스 땅 통합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14]

기억에서 기적으로

2017년에 ‘러시아의 역사적 기억에 나타난 드미트리 돈스코이 이미지’를 주제로 발표한 공동 논문에서 예브게니 로스톱체프와 드미트리 소스니치키 교수는 결론부에서 돈스코이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민적 기억 속에 당당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이상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5]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러 모스크바 크렘린의 아르한겔스키 대성당에서 돈스코이 유해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중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웅적 이상화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의기소침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일깨우려는 듯이 돌풍처럼 더 강하게 불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가 발견 이후 약 3주 만에 돈스코이 유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성자의 유해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폭증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언론과 학계도 돈스코이가 러시아 역사에서 보여줬던 영웅적 행보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타스통신》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특집기사로 ‘드미트리 돈스코이: 장군, 통합자, 성자’를 게재하여 그를 향한 관심 고조에 일조했다.


2014년 모스크바에서 제막한 드미트리 돈스코이 동상 ⓒ《위키피디아》

앞서 얘기했듯이, 러시아 정교회는 돈스코이 유해 일부를 9월 7일부터 20일까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 안치하여 일반 국민(신자)에게 공개했다. 돈스코이 유해는 이보다 하루 앞선 9월 6일 모스크바 성인 총회 기념일에 열린 성화 행진에서 성물함에 담겨 운구됐다. 이날 행진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프레치스텐스카야와 프룬젠스카야 강변로, 하몹니체스키 발 거리를 거쳐 노보데비치 수도원까지 6.5km에 걸쳐 이어졌고, 약 10만 명이 참가했다.[16] 2025년에 재개되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면서 정례화된 성화 행진 참가자는 일반 신자들이 대다수였지만, '차르그라드 TV' 소유자로 정교회 올리가르흐로 불리는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등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도 섞여 있었다. 어쨌든, 올해 성화 행진에 수많은 인파가 참가했던 주된 배경은 바로 돈스코이 성자의 유해를 경배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성자의 무덤에 가서 흙만 만져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성물에 경배만 해도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적의 믿음이 강하게 전해 내려온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돈스코이 유해를 찾아 성화 행진에 몰려들고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달려가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적의 힘을 빌려서 전시의 어려운 상황에 영혼의 정화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이나 고통까지 치유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돈스코이 성자의 유해를 모신 성화 행진에는 정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인의 민족적 통일성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더 분명히 담겨 있다.

다른 한편, 영웅적인 전사로서 승리의 상징이었던 드미트리 대공의 유해가 다름 아닌 전시에 마치 '동화처럼' 예기치 않게 발견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말처럼 시기상 '기적 같은' 일이었

> "돈스코이 성자의 유해를 모신 성화 행진에는 정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인의 민족적 통일성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담겨"

2026년 9월 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성화 행진 ⓒ《타스통신》

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교회는 돈스코이가 전장에서 검을 쥐었던 것으로 알려진 오른손 유해 중 일부를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 러시아군 기지와 부대들을 순회하게 했다. 이런 과정은 러시아 장병들이 성자의 유해를 참배하며 중세와 현대의 시공을 초월해 러시아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의 기운까지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돈스코이 유해의 존재는 수백 년 전 루스의 군대처럼 오늘날 러시아군도 타국의 침략자가 아닌 조국의 수호자로서 적군에 분연히 맞서 싸우고 있고 결국 승리하리라는 암시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의미심장한 점은 바로 이런 메시지 발신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와 교회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시 상황인 현재 러시아 국가와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대·교회·국가의 삼위일체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는 역사적 인물로서 알렉산드르 넵스키와 함께 드미트리 돈스코이만큼 적절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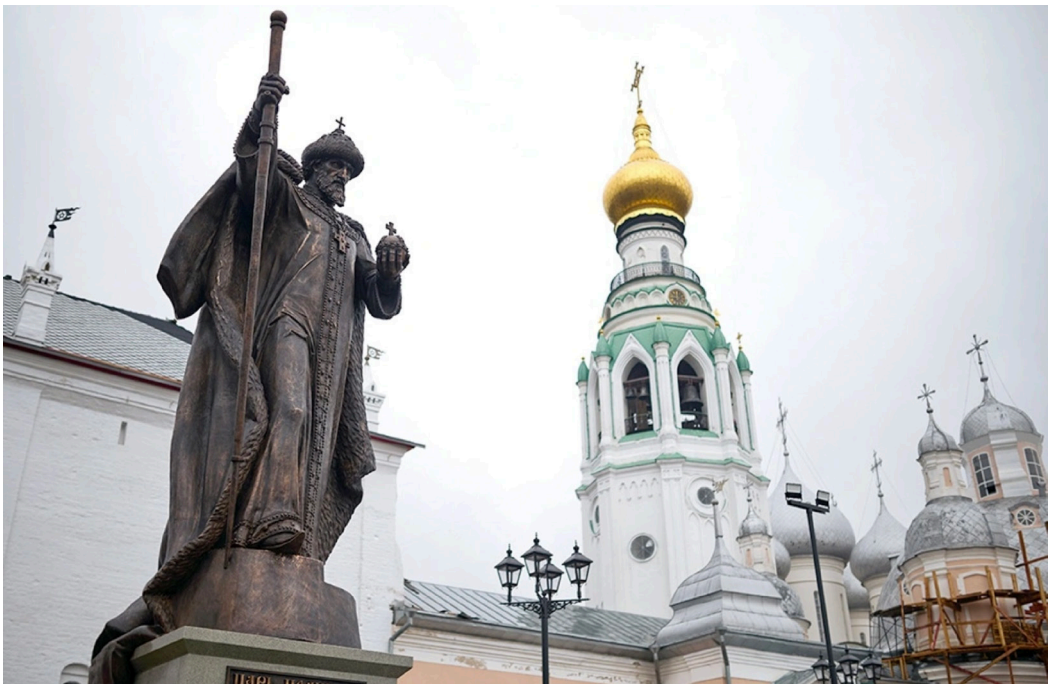
중세주의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사회문화적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중세 시대 러시아 통치자들에 관한 재조명 행보가 모종의 정치적 함의를 띠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 정치나 역사 정치의 틀 안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특징적 양상은 2016년 11월 크렘린 근처 보로비츠카야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키릴 총대주교,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정·교계 최고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블라디미르 대공 동상 제막식과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에 열린 블라디미르 대공에 관한 영화 「바이킹」 시사회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러시아 남부 오룔주 수도 오룔시에서 구세주 공현

>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 발견과 전시는
>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분명하게 관측된 중세주의의 부상을
> 뒷받침해 주는 최신 사례에 속해”

교회 근처에서는 러시아 최초의 ‘차르’ 이반 4세의 동상 제막식이 ‘세계 최초로’ 열려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26년 8~9월 모스크바에서 돈스코이 대공의 유해 발견과 전시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분명하게 관측된 중세주의의 부상을 뒷받침해 주는 최신 사례에 속한다. 이에 앞서 2021년에는 알렉산드르 넵스키 탄생 800주년 기념제가 성대하게 거행됐고, 기념비 제막 등 관련 행사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북서부 볼로그다에서 이반 4세 동상이 주지사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제막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다양한 목적과 계기를 통해 현대 사회로 소환된 중세 시대 러시아 통치자들이 국가 권력과 권위를 굳게 확립했고, 영토 확장과 통일, 민족 통합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들은 동서양의 외부 세계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략에 맞서 싸워 승리해 조국 영토와 정교 신앙을 수호하기도 했다.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덕목과 역할은 당연히 현재 러시아에도 매우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집단 서방의 부당한 간섭과 제재에 맞서 러시아 국익을 강력히 관철·수호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로서 확고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굳건



2025년 11월 볼로그다 크렘린 광장에 제막한 이반 4세 동상 ⓒ《로시스카야 가제타》

한 내부 결속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 (유해) 외에도 다른 긍정적 사례들이 중세에서 더 나올 수 있으리라.

---

1 “Неожиданно, почти сказочно и символично: Россия обрела мощи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https://tass.ru/obschestvo/28022867

2 “Как были обретены мощи свят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https://vz.ru/question/2026/8/18/1443897.html

3 “В РПЦ рассказали о целостности мощей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https://tass.ru/obschestvo/28022849

4 “Найденные мощи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поместят в три ковчега для поклонения верующих.” https://www.vedomosti.ru/society/articles/2026/08/19/1222095-naidennie-moschi-dmitriya-donskogo-pomestyat-v-tri-kovchega

5 “Как были обретены мощи свят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https://vz.ru/question/2026/8/18/1443897.html

6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провел молебен у мощей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в Кремле.” https://www.rbc.ru/rbcfreenews/6a8477ea9a7947b3a012e44d

7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призвал молиться о защите России и крепости духа ее народа.” https://ria.ru/20260818/patriarkh-2111664323.html

8 “Патриарх Кирилл назвал обретение мощей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особым знаком для России.” https://life.ru/p/patriarh-kirill-nazval-obretenie-moschey-dmitriya-donskogo-osobym-znakom-dlya

9 “Путин назвал чудесным обретение мощей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https://tass.ru/obschestvo/28029051

10 “Moscow City Day.”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80692

11 “Ничего святого. Кем на самом деле был 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которого пропаганда сделала своим символом.” https://theins.ru/history/296535

12 Андрей Усачёв. “«И цвет прекрасный царя Владимира...» Образ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Московской Руси XVI века.” Родина, No. 1 (2012). с. 104.

13 Евгений Ростовцев & Дмитрий Сосницкий. “«Куликовский плен»: образ Дмитрия Донского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Quaestio Rossica, Vol. 5, No. 4 (2017). с. 1155.

14 위의 논문. с. 1156.

15 위의 논문. с. 1158.

16 “Как прошел Общемосковский крестный ход.” https://moskvichmag.ru/gorod/v-krestnom-hode-s-moshhami-dmitriya-donskogo-prinyali-uchastie-okolo-100-tysyach-chelovek/

2026년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극동에서 더 넓은 아시아 경제 전략으로

라지 쿠마르 샤르마 카자흐스탄 SDU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겸
인도·중앙아시아재단 이사회 위원

2026년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회 동방경제포럼(이하 'EEF-2026')은 러시아 극동의 경제적·전략적 무게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줬다. 2015년 출범 당시 이 포럼은 개발이 더디고 지리적으로 외진 지역에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러시아와 아시아의 경제 관계, 북극을 향한 러시아의 야심, 교통 연결성, 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EEF-2026은 이런 변화를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냈다. '극동 – 사람을 위한 발전'을 주제로 내건 이번 포럼에는 78개국에서 9,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외국 기업 1,050곳 이상을 대표하는 기업인 약 2,400명이 포함됐다. 연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비즈니스 행사도 150건 넘게 열렸다. 포럼은 협정, 계약, 양해각서(MOU), 계획, 로드맵 328건을 체결하며 막을 내렸고, 계약 총액은 약 6조 8,150억 루블에 이른다.[1] 다만 이 수치는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구속력 있는 협정뿐 아니라 양해각서, 계획, 로드맵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어서 실제로 실현된 투자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발표된 내용

> “EEF-2026의 초점은 극동에 개별 투자를 끌어오는 일보다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북극, 아시아 시장을 잇는 경제 구조를 짜는 일로 옮겨가고 있어”

의 규모와 성격은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EEF-2026의 초점은 극동에 개별 투자를 끌어오는 일보다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북극, 아시아 시장을 잇는 경제 구조를 짜는 일로 옮겨가고 있었다.

개발과 연결성

이번 포럼은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짜였다. ‘극동에서 살고 일하기’, ‘민간 투자 유치 메커니즘’, ‘국제 교류의 중심, 극동’, ‘현재와 미래의 기술’, ‘경제 성장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바로 그것이다.[2] ‘사람을 위한 발전’에 무게를 둔 만큼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에너지, 교통과 나란히 주택, 의료, 교육, 인구 정책, 도시 계획, 관광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여기에는 러시아 극동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반영돼 있다. 땅은 광활한데 인구는 희박하고, 일할 사람은 모자라며, 인프라 비용은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은 투자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생활 여건을 만드는 일에도 달려 있다. 러시아가 2036년까지 내다보고 마련한 이 지역 인구 정책은 생활 수준을 높이고 학생과 숙련 노동자를 끌어들여, 앞으로 10년 동안 극동연방관구 인구를 최소 786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3] 극동의 내부 발전이 러시아의 더 넓은 경제 전략과 갈수록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가는 까닭이다.

북극횡단운송회랑

EEF-2026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25년 포럼에서 처음 제시된 북극횡단운송회랑(TATC)

EEF-2026 푸틴 대통령 연설 장면 ⓒ KRBC

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췄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제 북극항로를 외따로 떨어진 바닷길로 보지 않는다. 북극 항만과 시베리아 산업 중심지, 철도, 내륙 수로, 러시아 극동을 잇는 복합 운송 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하다.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항만, 쇄빙선, 물류 시설, 항해·위성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포럼이 내놓은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은 모허-나이바(Mohe-Naiba) 국제 운송 회랑이다. 중국이 아무르주와 야쿠티야를 거쳐 북극 연안과 이어지게 설계됐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 극동·북극개발공사, 사하공화국 개발공사가 맺은 협력 협정에는 1조 1,300억 루블 이상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4] 또 다른 협정으로는 북극과 TATC 통합 인프라를 위한 약 1조 루블 규모의 투자 체계가 마련됐다. 로사톰(Rosatom)과 극동·북극개발공사도 북극 교통 인프라와 북극항로 구축에 약 7,243억 루블 규모로 투자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5] 약 4,666억 루블이 들어갈 아르한겔스크 심수항 건설 계획도 새로 짜이는 네트워크의 주요 축이 될 것이다.[6] 이들 사업의 전략적 가치는 낱낱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한데 합쳐질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데에 있다. 모두 이어지면 시베리아와 북극을 거쳐 중국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러시아 유럽 지역은 물론 잠재적으로는 유럽 시장까지 닿는 동북부 교통축이 생길 수 있다. 북극이 러시아의 아시아 경제 전략 안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심을 넘어선 다각화

EEF-2026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딩쉐샹(丁薛祥) 중국 부총리가 본회의에 참석했고, 중국 대표단은 인프라, 에너지, 기술, 투자 논의에 참여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한국, 인도, 미얀마와 함께 주요 외국 대표단을 이뤘다.[7] 지리적 위치, 무역, 산업 역량, 그리고 중국 시장이 러시아 극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번 포럼의 짜임새는 아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드러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마주 앉은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대화는 공급망, 가공 산업 공동 투자, 기술, 에너지, 물류, 첨단 농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 가운데 베트남의 참여가 특히 의미 있었다. 베트남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일한 아세안 회원국이기 때문이다.[8] 이는 러시아가 외국 경제 파트너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맡기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은 규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아세안은 시장과 공급망 다각화를, 인도는 남아시아로 나가는 길을, 한국은 첨단 해양·조선·물류 역량을 제공한다.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할 나라를 찾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일 외부 시장에 기대는 구조를 피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를 비롯한 민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정부 대표로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가 자리했다. 주러 대사가 EEF에 참석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는 주러 대사관 경제 공사나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같은 현지 공관 인사를 보내며 참석 수준을 낮춰왔다. 그런 점에서 2026년의 격상은 의미가 있다. 대러 제재라는 기존 정책 틀은 유지하되,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소통 채널을 관리하고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제재와 정치적 위험이 러시아 극동과 북극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자본 투자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으로 남아 있다.

EEF-2026에 참가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 로스콘그레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세안 파트너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참석은 포럼의 동남아시아 축에 정치적 무게를 실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농업, 교통 분야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업 구상 가운데 하나가 푸푸크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와 루스켐(Ruschem)의 합의다. 두 회사는 나홋카 비료 공장의 2단계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은 극동이 원자재를 내보내는 곳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농업·산업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도 중요한 물류 파트너로 떠올랐다. 베트남 해운공사(VIMC)와 러시아 운송 기업 페스코(FESCO)는 운송·물류 협력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사이공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쌍둥이 항구'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과 북극항로를 연결할 가능성도 논의됐다.[9] 이런 구상들은 극동 항만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기반과 아시아의 공급망을 잇겠다는 더 큰 목표를 시사한다.

인도: '극동 행동 정책(Act Far East)'에서 경제적 실행으로

인도의 참여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9년 EEF에서 '극동 행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도가 러시아 극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돕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도

> "극동 항만을 통해
> 러시아의 생산 기반과 아시아의 공급망을 잇겠다는
> 더 큰 목표를 시사"

함께 내놓았다.[10] EEF-2026은 이 의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정치적 협력을 더 큰 규모의 상업 프로젝트로 바꿔내야 할 필요성도 드러냈다.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투자, 물류, 기술, 제약, 정보기술(IT), 산업 협력이 논의됐다. 협력 가능 분야로는 핵심 광물, 희토류, 북극 과학 협력, 공동 제조, 연결성이 꼽혔다. 그 가운데서도 첸나이-블라디보스토크 해상 회랑은 여전히 각별히 중요하다. 인도는 이미 두 항구를 잇는 대체 해상 연결로 개발에 관심을 밝힌 바 있고, 북극항로와 인도양에 둘 수 있는 환적 인프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11] 더 넓게 보면 인도와 러시아 극동의 협력은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을 보완할 수 있다. 인도가 유라시아의 남부 노선과 동부 노선을 거쳐 러시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적 존재감을 넘어 지속적인 투자, 제조업 진출, 지역 가치 사슬 참여를 실제로 이뤄내는 일이다.

기술과 러시아의 극동 전략

EEF-2026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에는 AI, 로봇공학, 무인 시스템, 플랫폼 경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12] 여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자동화는 노동력 부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은 광활한 거리를 넘나들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해주에 350억 루블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첨단 반도체 생산단지다. ICS홀딩(ICS Holding)과 러시아 당국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3만 5,000㎡ 이상의 부지에 기능이 서로 다른 생산 시설 두 곳을 짓고 엔지니어링 일자리 약 5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시설은 갈륨비소(GaAs)와 질화갈륨(GaN)을 기반으로 한 초고주파(SHF/RF) 반도체 부품을 해마다 500만 개 이상 생산한다. 주요 수요처는 ICS홀딩 계열사 야드로(YADRO)의 차세대 통신 장비다. 두 번째 시설은 우주용 광전 변환 소자(태양전지용 소자)를 해마다 최대 50만 개 생산해, 또 다른 계열사 뷰로 1440(Bureau 1440)이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한 반도체 공장 건설로만 볼 수 없다. 통신 장비와 저궤도 위성이라는 첨단 완제품의 핵심 부품을 러시아 안에서 생산해, 반도체에서 최종 시스템에 이르는 기술·생산 사슬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13] 기술 의제를 '기술 주권'에 관한 일반론에서 구체적인 제조 역량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에너지 분야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산업화,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하나같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 극동 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이유다.

인적 차원

EEF-2026은 개발의 사회적 토대에도 더 큰 비중을 뒀다. 포럼에서는 산업 프로젝트와 나란히 주택, 의료, 교육, 도시 개발, 관광이 논의됐다. 극동 하면 흔히 떠올리는 자원·인프라 중심 접근에서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다. 러시아의 현재 전략은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구 면에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매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2036년까지의 정부 인구 전략, 그리고 경제·인구·인프라·공간 개발을 하나로 묶으려는 도시 마스터플랜이 이런 방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14] 이런 의미에서 극동은 러시아의 더 넓은 개발 모델을 먼저 시험하는 시범 사례로서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다.

나가며: EEF-2026의 차별점

2025년과 견주면 체결된 협정은 358건에서 328건으로 줄었지만, 보고된 계약 총액은 6조 580억 루블에서 6조 8,150억 루블로 늘었다. EEF-2026은 2025년의 확대판에 그치지 않았다. 규모가 더 크고, 인프라 비중이 높으며, 전략적으로 서로 연계된 프로젝트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포럼을 특히 돋보이게 하는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극동은 단순한 지역 투자 구역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의 EEF는 투자, 인프라, 지역 개발에 크게 집중했다. 2026년 프로그램은 이 목표들을 인구, 기술, 인적 자본, 산업 다각화와 연결했다. 둘째, 북극이 극동 경제 전략에 더 단단히 통합됐다. TATC, 북극항로, 북극 항만, 시베리아 철도가 서로 맞물린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로 논의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아시아 선회' 전략이 더 다각화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상대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일본,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폭넓은 경제 관계망을 짜려는 시도를 시사한다. 무역과 투자를 아시아 시장으로 돌리는 데 주로 힘을 쏟았던 '아시아 선회' 초기 단계와 EEF-2026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국제 체제에 주는 시사점

러시아 국내 정책 면에서 EEF-2026은 우대 투자 제도, 인프라, 도시 개발, 기술, 인구 정책 등으로 극동의 구조적 문제를 풀려는 러시아 정부의 시도에 힘을 싣는다. 2027년부터 극동과 북극에 적용될 통합 우대 제도는 두 지역 전반의 투자 조건을 간소화하려는 장치다.[15] 대외 경제 정책 면에서는 인프라가 경제 외교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항만, 철도, 에너지 시스템, 북극항로는 아시아 경제권과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넓다. TATC, 모허-나이바 회랑, 북극항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항만과 철도가 실제로 구축된다면 유라시아 연결망의 지리적 구조는 한층 다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중국, 인도, 아세안,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러시아 북부·동부 지역과 더 긴밀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제재, 보험, 자금 조달, 기술 접근성, 운송 비용, 해빙(海氷) 상황, 인프라 수용 능력, 화물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총 6조 8,150억 루블이라는 수치도 실현된 투자액이 아니라 아직은 약속된 투자 목록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16] EEF-2026의 의미는 결국 체결된 협정 건수 자체보다는 그 협정들이 한데 모여 드러내는 러시아의 지경학적 상황에 있다. 러시아 극동은 러시아, 중국,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북극을 잇는 교두보로서 위상을 차츰 굳히고 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가 '동방 전환'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그 전환을 지속하는 데 필

> "TATC, 모허-나이바 회랑, 북극항로,
> 이와 관련된 항만과 철도가 구축된다면 유라시아 연결망의
> 지리적 구조는 한층 다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요한 인프라와 산업 역량, 제도적 장치를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핵심 질문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방향을 틀고 있느냐가 아니다. 이 과정이 어떤 모습의 아시아-북극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로스콘그레스 재단.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2026.9.4.
https://forumvostok.ru/en/news/podvedeny-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2 로스콘그레스 재단. “EEF 2026: 전체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개.” 2026.8.
https://roscongress.org/en/news/programma-vostochno-ekonomicheskogo-foruma-2026-opublikovana/

3 러시아 연방 정부. 「2030년까지의 극동 인구 정책 전략 및 2036년까지의 전망」. 2026.2.2.
https://government.ru/docs/57795/

4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동방경제포럼, 교통·인프라 분야 328건의 협력 문서 체결로 폐막.” 2026.9.
https://www.jetro.go.jp/biznews/2026/09/296aef31416255dc.html

5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동방경제포럼, 교통·인프라 분야 328건의 협력 문서 체결로 폐막.” 2026.9; 로스콩그레스 재단.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2026.9.4.
https://www.jetro.go.jp/biznews/2026/09/296aef31416255dc.html
https://forumvostok.ru/en/news/podvedeny-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6 로스콘그레스 재단.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2026.9.4; 《베도모스티》.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2026.9.4.
https://forumvostok.ru/en/news/podvedeny-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6/09/04/podvedeni-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7 러시아 북극·극동 개발 포털(Arctic.ru). “유리 트루트네프, 2026년 동방경제포럼 잠정 결과 요약.” 2026.9.4.
https://en.arctic.ru/20260904/1721481.html

8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대화.” 2026.9.2.
https://www.russia-asean.com/en/events/1803

9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대화.” 2026.9.2; 《베도모스티》.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2026.9.4.
https://www.russia-asean.com/en/events/1803
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6/09/04/podvedeni-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10 인도 외무부. 『2019–20 연례 보고서』. 총리의 블라디보스토크·동방경제포럼 방문 관련 부분.
https://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32489_AR_Spread_2020_new.pdf

11 인도 정부 언론정보국(PIB). “인도-러시아 관계: 동부 해상 회랑과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연결성.” 2023.9.
https://www.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56251&lang=2&reg=48

12 로스콘그레스 재단. “EEF 2026: 전체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개.” 2026.8.
https://roscongress.org/en/news/programma-vostochno-ekonomicheskogo-foruma-2026-opublikovana/

13 극동·북극개발공사. “연해주, 화합물 반도체 기술 중심지로 부상.” 2026.9.3.
https://erdc.ru/en/news/primore-stanet-tsentrom-tekhnologiy-slozhnykh-poluprovodnikov-na-vef-2026-podpisano-soglashenie-o-so/

14 러시아 연방 정부. 「2030년까지의 극동 인구 정책 전략 및 2036년까지의 전망」; 러시아 연방 정부. 2036년까지의 극동 연방관구 사회경제 발전 전략 관련 자료.
https://government.ru/docs/57795/
https://government.ru/

15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EEF-2026 기조연설과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극동·북극 통합 투자 우대 제도를 보도했다.
https://www.jetro.go.jp/biznews/2026/09/296aef31416255dc.html

16 로스콘그레스 재단. “2026년 동방경제포럼 결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동방경제포럼, 교통·인프라 분야 328건의 협력 문서 체결로 폐막.” 2026.9.
https://forumvostok.ru/en/news/podvedeny-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6/
https://www.jetro.go.jp/biznews/2026/09/296aef31416255dc.html

두 이름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글 _ **올가 댜트코** 러시아 역사가
번역 _ **이태훈**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오늘날 칼리닌그라드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이자 '쾨니히스베르크의 일곱 다리 문제'로 잘 알려진 도시다. 그러나 이 도시의 역사는 어느 한 나라의 역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13세기 튜튼 기사단이 세운 요새에서 출발한 쾨니히스베르크는 프로이센의 주요 도시이자 발트해 교역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7년 전쟁 때는 러시아 지배를 한동안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소련군과 독일군이 격전을 벌인 끝에 폐허가 됐다. 전후 포츠담 회담에 따라 동프로이센 북부가 소련에 편입되면서 도시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었다. 1946년 쾨니히스베르크는 소련 정치인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을 딴 칼리닌그라드로 개칭됐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본토와 떨어진 월경지가 된 칼리닌그라드는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요충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의 제재와 리투아니아를 통과하는 육상 물류 제한으로 본토와의 이동과 물자 수송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발트 3국과 폴란드가 러시아와 대립하고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서 칼리닌그라드는 사실상 NATO 회원국들에 둘러싸인 러시아의 전략적 거점이 됐다. 폴란드는 2023년부터 공식 문서와 지도에서 칼리닌그라드를 폴란드어의 역사적 명칭인 '크룰레비에츠'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러시아는 2026년 칼리닌그라드주 창설 80주년을 기념했다. 7월에는 대규모 공연과 체육 행사가 열렸으며

앞서 6월에는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가 칼리닌그라드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대공 동상 제막을 축성했다. 이는 칼리닌그라드를 러시아의 역사와 정교회 전통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상징적 행보이기도 했다.
한국인에게도 쾨니히스베르크는 아주 낯선 이름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학창 시절 한붓그리기의 가능성을 묻는 '쾨니히스베르크의 일곱 다리 문제'를 통해 이 도시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시한 사고방식은 현대 그래프 이론과 위상수학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수학 교과서 속 평화로운 다리의 도시에는 여러 국가와 민족이 충돌하고 도시의 이름과 정체성이 거듭 바뀐 역사가 겹쳐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과 분단을 겪고 지명과 영토를 둘러싼 역사적 기억이 여전히 외교 문제로 이어지는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는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6년 4월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쾨니히스베르크가 칼리닌그라드로 변모한 과정을 살펴본다. 튜튼 기사단이 세운 요새 도시와 이마누엘 칸트의 생애, 7년 전쟁 당시 러시아의 통치, 제2차 세계대전의 쾨니히스베르크 공세와 전후 복구 사업을 따라가며 한 도시의 이름과 주민, 정치적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월경지가 된 칼리닌그라드가 오늘날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된 배경도 함께 생각해 본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역사가 건축물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쟁과 이주, 기억과 정체성이 중첩되는 과정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과거 쾨니히스베르크로 알려졌던 칼리닌그라드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 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야외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요새 도시이다. 1946년 4월 7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내 쾨니히스베르크주 설치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4일 쾨니히스베르크는 소련 정치인 미하일 칼리닌을 기려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쾨니히스베르크주 역시 칼리닌그라드주로 개칭됐다.

중세 초기에는 이 지역에 호전적인 프로이센 부족들이 살았다. 13세기에는 튜튼 기사단이 발트해 남동부 지역으로 진출했다. 1255년 이들은 '왕의 산'이라는 뜻의 요새 도시 쾨니히스베르크를 세웠다. 처음에는 소박한 목조 요새에 불과했지만, 이후 이 자리에 석조 성이 들어섰다. 독일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들에게는 토지부터 농기구와 가축까지 여러 혜택이 주어졌다. 요새 주변에는 알트슈타트와 크나이프호프, 뢰베니히트라는 도시들이 형성됐으며 장인과 상인, 기사들이 살았다. 오랫동안 세 도시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하다가 결국 1724년 공식적으로 하나로 통합돼 쾨니히스베르크가 됐다.

"과거 쾨니히스베르크로 알려졌던 칼리닌그라드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 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야외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요새 도시"

칼리닌그라드 대성당 ⓒ《루스키 미르》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

1724년 4월 22일 쾨니히스베르크의 한 장인 가정에서 훗날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태어났다. 그는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비롯해 수많은 철학 저서를 남겼다. 흥미롭게도 칸트는 여행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지만, 평생 고향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었다. 독일 철학자 빌헬름 빈델반트는 1895년 출간한 『칸트 철학』에서 이렇게 썼다. "칸트의 활동에서 중심을 이룬 것은 철학 강의였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연과학 분야에 깊은 관심을 끊임없이 보였다. 때때로 자연지리학을 강의했는데 이 강의에 가장 많은 청중이 몰렸다." 칸트는 베를린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나의 과학아카데미

1 이마누엘 칸트의 초상(1768년) ⓒ《루스키 미르》

2 이마누엘 칸트의 유해는 대성당 북쪽에 인접한 교수 묘역에 안장됐다. 1924년 대성당 벽면에 기둥 회랑 형태의 기념관이 세워졌으며 그 안에는 석관이 놓였다. ⓒ《루스키 미르》

> “1804년 칸트가 세상을 떠나자,
> 도시 전체가 그를 진심으로 애도해”

회원이었다. 1804년 칸트가 세상을 떠나자, 도시 전체가 그를 진심으로 애도했다.

러시아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

18세기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7년 전쟁(1756~63)을 벌였다. 1758년 1월 11일 러시아군은 전투 없이 쾨니히스베르크에 입성했다. 이틀 뒤 시민들은 러시아 황제 엘리자베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당시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의 사강사였던 이마누엘 칸트도 충성을 맹세했다.

1944년 10월 23일 동프로이센 에이트쿠넨(현재 칼리닌그라드주 체르니셉스코예 마을)에 진입하고 있는 소련군 ⓒ《루스키 미르》

러시아군을 지휘한 육군 대장 빌림 페르모르는 동프로이센 총독으로 임명됐다. 한 달 뒤 코르프 남작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후 바실리 수보로프가 총독이 됐다. 그의 재임 기간(1760~61) 쾨니히스베르크는 러시아 도시 모습을 점차 갖춰 갔다. 러시아 화폐가 주조됐고 정교회 선교단도 들어섰다. 당시 수보로프의 아들인 육군 중령 알렉산드르 수보로프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훗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명장이 된 인물이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대왕을 열렬히 숭배하던 러시아 황제 표트르 3세가 1762년 프로이센과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군은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철수했다. 러시아군은 1812년 잠시 이곳에 돌아왔다가 1945년에는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됐다.

파죽지세 공세

1945년 1월 소련군은 동프로이센에서 공세를 시작했다. 3월 30일 이반 바그라먄 장군은 「쾨니히스베르크의 적군을 격파하고 쾨니히스베르크를 점령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근위 중령 바실리 벨리치코는 『쾨니히스베르크의 함락』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파죽지세 공세였다. 전투는 광활한 지역에서 펼쳐졌다. 프로이센의 잿빛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독

> “쾨니히스베르크는 동프로이센의 정치·행정 중심지이자 강력한 요새 지대”

일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고 오랜 세월 구축된 요새와 최신 방어선도 허물어졌다. (…) 체르냐홉스키의 군대는 약 200년 전 7년 전쟁 당시 러시아 연대가 프로이센의 수도 쾨니히스베르크를 향해 진군했던 바로 그 땅을 다시 지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쾨니히스베르크 점령」의 한 장면 ⓒ《루스키 미르》

『붉은 군대의 동프로이센 작전』의 저자들은 당시 전투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쾨니히스베르크는 동프로이센의 정치·행정 중심지이자 강력한 요새 지대이며 해안 요새로서 독일군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 남은 독일군의 마지막 거점이기도 했다. 쾨니히스베르크로 향하는 길목에는 인공·자연 장애물을 갖춘 여러 겹의 참호와 수많은 지뢰밭으로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도서관 포털에서는 1945년 제3벨라루스전선의 촬영기사들이 기록한 귀중한 영상 자료 「쾨니히스베르크」도 볼 수 있다. 1945년 4월 6일 쾨니히스베르크 공세가 시작됐으며 4월 9일 독일군 수비대가 항복했다.

조속한 복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승전국의 포츠담 회담에서는 동프로이센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과 쾨니히스베르크는 소련에 넘겨졌고 나머지 3분의 2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에 귀속됐다. 쾨니히스베르크의 역사적 중심지는 전투로 폐허가 됐다. 상하수도와 가스 시설은 물론 교통과 산업 시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도시 거리에는 벽돌 더미와 무너진 건물 잔해가 가득했다.

1944년 10월 23일 동프로이센 시르빈트(현재 칼리닌그라드주 쿠투조보 마을)의 거리를 지나고 있는 소련군 중포병 부대 ⓒ《루스키 미르》

1946년 6월 소련 각료회의는 「쾨니히스베르크주의 경제 재건

> “1966년 칼리닌그라드주는 지역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레닌 훈장 받아”

조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규정하고 도시와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어진 기간은 매우 짧았다. 연말까지 쾨니히스베르크주의 관할 기업에서 동물성 지방과 유제품,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도록 해야 했다. 8월까지는 쾨니히스베르크, 인스터부르크(체르냐홉스크), 틸지트(소베츠크), 라그니트(네만)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이 도시들을 잇는 시외버스도 운행해야 했다.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열고 선박 운항을 재개하며 네만강을 건너는 연락선도 마련해야 했다. 의료기관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의약품을 확보하며 적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한 달이었다. 그러나 당장 먹고사는 문제만 챙긴 것도 아니었다. 영화부는 영화관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만큼의 이동식 영사 장비도 보급해야 했다.

대규모 재건 계획이 실행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산업도 정상화됐다. 특히 수산물 어획과 가공, 선박 건조와 수리, 제지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1948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호박 채굴·가공 기업인 칼리닌그라드 호박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지역의 항만 시설도 꾸준히 발전했다. 불과 20년 뒤인 1966년 칼리닌그라드주는 지역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레닌 훈장을 받았다. 1971년에는 칼리닌그라드시에 노동 적기 훈장이 수여됐다.

칼리닌그라드 수수께끼

유리 로시코프-유리옙스키는 「러시아 월경지로서 칼리닌그라드주의 발전에 나타난 지정학적 특성」이라는 학위논문 초록에서 이렇게 썼다.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러시아 본토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칼리닌그라드주의 특수성은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독특한 현상이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칼리닌그라드주는 “러시아 연방의 독특한 월경지”가 됐다. 팽창하는 EU의 경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고립된 러시아 지역’을 둘러싼 문제는 러시아 국내외 학자와 정치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칼리닌그라드주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가리켜 ‘칼리닌그라드 수수께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된호프 요새의 복도에는 옛 쾨니히스베르크 사진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돼 있다. ⓒ《루스키 미르》

‘이해 가능한 타자’
러시아 한류의 인기 비결

파벨 로디킨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브랜드 코리아’로서 한류

러시아 대중 인식 속에서 아시아 문화는 ‘일본·한국·중국’이라는 ‘삼각형’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삼각형의 각 ‘정점’은 그 ‘비중’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사회가 특정 국가와 그 문화, 소비재에 대해 내리는 가치 평가는 인지도(인지도 및 긍정적인 소비자 경험), 제품 품질(브랜드의 유형 자산), 상품·서비스의 위상과 유행성(무형적·문화적 요인과 트렌드)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둔다. 이런 점에서 한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상이며, 러시아도 그 매력과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마켓플레이스의 ‘아시아’ 또는 ‘아시아 뷰티’ 카테고리에서 상품 구성의 절반 이상은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한국’의 미(K-뷰티)라는 개념이 사실상 혼동되고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종종 포장지에 한글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상품이 진짜 한국산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힘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서구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에 있다. ‘한국산’은 러시아 대중 인식 속에서 품질, 명성, 인기라는 긍정적인 특성을 부여받으며, 이는 매우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한류 확산은 고르지 않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브랜드의 입지와 인지도는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첫째, 시장에 진출해 있고 잘 알려진 분야로,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

> “한류 현상은 정치 영역이나 거시적 이데올로기 영역을 사실상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워”

한 엔터테인먼트, 음악 산업(K-팝), 가전제품·가전기기, 자동차, 화장품, 식품(‘페레크레스토크’ 체인 슈퍼마켓에 입점한 제품), 한국 음식 카페·레스토랑 등의 소비재가 있다. 둘째,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문학, 예술, 인테리어 디자인, 사물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있다. 셋째, 잠재적으로 수요가 높고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 건축, 대중적인 일상 패션이 있다. 이처럼 구분된 항목 간의 경계—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와 잠재적 관심 분야 사이—는 대체로 점진적·단계적 변화의 성격을 띤다.

여러 면에서 한류는 국가·지역 브랜딩 분야의 선도적인 이론가이자 전문가인 사이먼 안홀트(Simon Anholt)가 묘사한 ‘브랜드 아메리카(미국)’를 반복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전 세계를 사로잡는 ‘브랜드 아메리카’의 문화적 가치는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글로벌 지배력과 함께 미국 기업들과 그 브랜드들에 의해 형성되고 전파된다. 안홀트는 이런 장악 현상을 “우리는 당신들을 싫어하지만, 제발 「베이워치」를 보내주세요”라고 아이러니하게 묘사한다. 이런 ‘브랜드 아메리카’와는 달리, 한류 현상은 정치 영역이나 거시적 이데올로기 영역을 사실상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국의 브랜드와 소비재, 문화 상품들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대중문화는 이를 강화하며 ‘원산지’ 효과

모스크바 노비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치코’ 매장 내부 ⓒ RIO

를 창출하는데, 이는 '우산' 역할을 담당한다. 단순히 좁은 의미의 상업적 제품이나 마케팅 도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되는 브랜드들은 국가 브랜딩 분야에서 앤홀트가 '경쟁적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한다. 한류 내 다양한 브랜드·제품의 기능과 상호작용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실상 '브랜드—대중문화—원산지'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각 수준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간에 누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류가 형식적으로 서로 연관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대중적인 제품과 광범위한 관객층으로 확산하기 때문이다. 2020년 모스크바에 문을 연 한국식 길거리 음식 체인 '치코(CHICKO)'가 대표적인 예로, K-팝과 드라마를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인기를 얻었다. 한류의 확산은 하나의 인기 콘텐츠가 다른 분야에서도 열풍을 일으키는 파동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런 확산 사례로는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2025)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 러시아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드라마 관련 상품으로 넘쳐났다.[1]

한류의 성공 비결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발휘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류 현상은 그동안 잘 연구됐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시의적절한 개념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후기 세계화의 위기 상황과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적·지경제학적 현실로서 형성되고 있는 신(新)세계화의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개념화의 방향 중 하나가 바로 문화 간 소통의 문제이다.

러시아 내 한류 인식의 특이성은 러시아 사회가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인 점과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시도하려는 열망, 타문화의 경험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능력과 적응력, 그리고 특유의 제노센트리즘(Xenocentrism)[2]에서 나온다. 일부 연구자는 이 현상의 원인을 러시아 문화의 유라시아적 특성에서 찾는다. 데이비드 쉬멜펜닝크 반 데르 오예(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가 『러시아 오리엔탈리즘』(2010)에서 지적했듯이,[3]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은 동양을 '타자'인 동시에 '자기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런 인식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묘사한 서구 오리엔탈리즘과는 구별된다. 서구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타자로서의 이미지를 창조하여 이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 '동양'은 '이해 가능한 타자'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자'와 '대타자'의 개념은 철학과 심리학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로 정립됐으나, 사회학적, 문화학적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해 가능한 타자' 개념은 타자가 여전히 타자로 남아 있고, 사회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거리가 유지되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접근 불가능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존재'라는 데 있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해 가능한 타자'는 '의미의 보물창고'이지만, 라캉 철학과는 달리 '올바른 의미 체계'를 생성하고 통제하는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타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문화적 세계관의 구조적 요소이다. 러시아 독자들에게 이런 '이해 가능한 타자'로는 한국 음악

> “‘이해 가능한 타자’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공감에 기반을 두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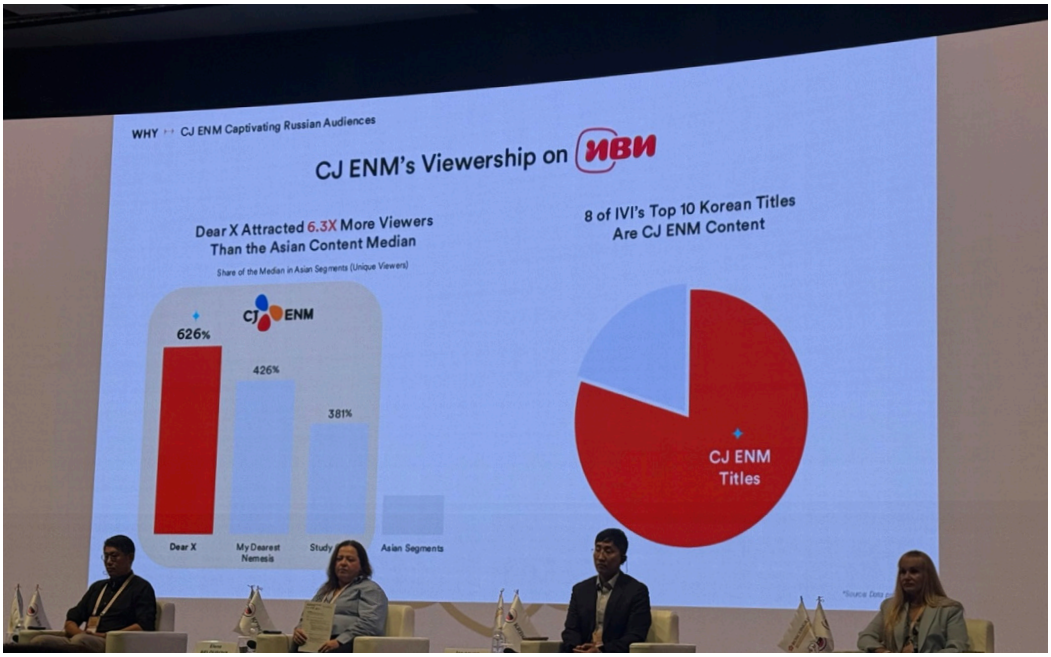
(K-팝)과 영화, 드라마, 문학 등이 있으며, 특히 서점에서 한국 문학 서적의 종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러시아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작가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한강, 이미예, 김지윤, 김영하, 정세랑 등 많은 작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화 상품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객관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독자들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해 가능한 타자’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공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공감은 후기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에 공통된 주제들—사회적 정의, 가해자에 대한 응징, 역경에 맞선 불굴의 의지, 소외, 행복 추구 등—을 통해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러시아 관객이나 독자에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재구성’되어 ‘즉석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이식’된다. 이런 식으로 감정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국적인 것은 러시아에 이국적인 것이 더는 아니며, 익숙한 정서적·심미적 지평의 일부가 된다.

‘타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긍정적인 해독·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 커뮤니케이션(광고, 마케팅, 미디어 홍보 등)뿐만이 아니다. 대중문화도 영향력이 지대하다. 각 브랜드는 저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포지셔닝, 정체성, 즉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인 대중문화 환경이 브랜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정 현실의 이미지와 그 인식 패턴을 형성한다. 게다가 미디어 콘텐츠(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자체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산업과 미디어는 생활양식을 형성하며, 이를 통한 상품·서비스 홍보는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기능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장르와 줄거리, 사실성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 문화가 ‘러시아 시청자에게 낯선’ 것으로 묘사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기준 러시아 내 한국 콘텐츠 구매량은 연간 33% 증가했고, 한국 드라마는 외국 미디어 콘텐츠 중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4] 이런 수요는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관객은 ‘자기 것’과 ‘타자’라는 범주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수용하거나 거부한다. 러시아 미디어 담론에서 한국 영화는 종종 ‘타자’로 규정하는 용어로 묘사되지만, ‘강렬함’, ‘운명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등과 같은 특징적인 장르적 패턴을 통해 이해된다. 이런 특징들은 현지 맥락, 다시 말해 한국 특유의 맥락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준다. 김성훈 감독의 「골드 랜드」(2026), 우민호 감독의 「메이드 인 코리아」(2025~26), 홍종찬 감독의 「참교육」(2026) 등의 드라마—물론 이 목록은 아주 길게 이어갈 수 있다—는 오락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작품에서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호프」: 성숙기 한류의 작동 방식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관객에게서 나타나는 한류에 대한 수용력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대



2026년 9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 CJ ENM이 제작한 한국 드라마들이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 RIO

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최국희 감독의 「국가 부도의 날」(2018),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2025) 등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들이 그려내는 이야기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낯익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특히, 지난 9월 러시아에서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2026)는 러시아 영화계와 극장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국 흥행작 목록에 이름을 올린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 관객은 물론 한류라는 개념 자체에 그 이해의 한계를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작품이다. 급진적인 실험가로 명성을 얻은 나홍진 감독은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전통들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한다. 그는 외계인의 침공을 다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익숙한 형식—규모와 화려함,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을 빌려와서, 비무장지대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과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두려움과 미신 등 지극히 지역적이고 거의 일상적인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 배치한다.

세계적 규모의 종말은 지역적 일상, 그 부조리와 유머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관객에게 「호프」는 이중의 도전이 된다. 한편으로, 관객은 비록 내적으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미 형성된 기대감을 안고 이 영화를 접한다. 어떤 이들은 '거침'과 '운명론', '소름 끼치는 액션'이 특징인 익숙한 한국 영화를 기대하고, 다른 이들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하고 보편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블록버스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호프」는 이런 형식 중 어느 것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외계인을 다룬 판타지 액션 영화도 아니고, 순수한 예술 영화도 아니다. 나홍진은 의도적으로 기성 장르의 틀을 거부하며, 관객이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재조정하게 한다. 익숙해 보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낯설어 보이는 것이 뜻밖에도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러시아 내 한류에 미치는 「호프」의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먼저, 「호프」는 러시아 관객에게 기존의 장르적·문화적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를 제시함

> 「호프」는 성숙기에 접어든 한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으로써,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너무 낯선'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다음에 「호프」는 그런 서사 구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으로 한류를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하고, 관객에게 한류의 독창성과 흥미성을 더해준다. 「호프」는 한국적인 요소를 단순화하지도, 기존의 기대에 맞춰 각색하지도 않으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세우지도 않는다.

2026년 9월 10일 러시아에서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포스터 ⓒ RIO

따라서 「호프」는 순수한 형태의 '이해 가능한 타자'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이질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포, 가족, 생존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와 익숙한 영화적 리듬, 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동기가 이해되는 주인공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런 의미에서 「호프」는 성숙기에 접어든 한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작품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나 모방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문화적 산물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일수록, 관객의 감수성 구조 내에서 그 입지는 더 공고해진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작품이 접근 지점과 공감의 통로, 낯선 맥락을 즉석에서 '재구성'할 가능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호프」는 러시아 관객에게 바로 이런 경험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한국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모순과 예상치 못한 요소, 친숙함을 동시에 담아내 보여준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여기에 한류의 다음 발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심화하는 작업에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청자에 대한 신뢰에서 만들어진다.

향후 과제: '한국 이론' 정립

한류는 '이해 가능한 타자'의 개념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브랜드와 문화의 네 가지 존재 상태를 포함하는 포지셔닝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이국성을 포함한 독자성과 특수성, 2) 통일성을 포함한 개방성과 세계성, 3) 적응과 현지화, 4) 장벽(극복할 수 없는 장벽 포함)이 바로 그것이다. 대다수 한국 제품과 브랜드는 적응성과 개방성, 즉 가독성,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자신의 경험적·감각적 경험과의 연관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한류 현상은 대중적인 신(新)세계화의 문화로 간주돼야 하며, 그 공간 내에서 국가 문화와 특성은 장벽이 아니라 원동력이 된다. 이와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타자'들 간의 경쟁도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의 경쟁자는 중류(Chinese Wave)이며, 이는 새로운 분야에서만 아니라 이미 점유된 상품과 문화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경쟁 분야 중 하나는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도약한 중국의 공상과학(SF) 분야이다. 따라서 러시아 대중에게 덜 알려진 분야, 즉 한류의 구조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흥미롭고 수요가 있는' 영역으로 분류된 분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시의성을 부각하는 연구가 상당수 나오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 건축이다. 특히, 이 문제에서 한국 건축가들은 전통이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의도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 건축가 중 한 명인 문훈은 그와 유사한 접근법을 다

건축가 문훈이 설계한 쌍둥이 다세대·근린생활 시설 '투문정션'.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소재 ⓒ prorus.ru

> “한국 디자인과 건축, 시각 예술을 홍보하고 ‘한국 그랜드 스타일’을 형성하려면 ‘한국 이론’ 필요해”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보통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이것이 한국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무언가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 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전통 건축의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뿐이며, 내가 이를 내 디자인에 어떻게 통합했는지는 어쩌면 나중에 가서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5]

한국 디자인과 건축, 시각 예술을 홍보하고 ‘한국 그랜드 스타일’을 형성하려면 ‘한국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화하는 작업은 중대한 질적 도약이 될 것이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서양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이른바 ‘프랑스 이론’과 해체주의 사상이 도입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세계적 영향력이 강화됐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이론’이 시급한 이유는 창의 산업과 지식 서비스 시장에서 급변하는 세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적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도구로는 바로 한국 드라마들이 활용될 수 있다. 문화 간 소통의 맥락에서 ‘한국 이론’은 새로운 지경학적 주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한류의 추가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새로운 유망 분야와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RIO

---

1 『457번 참가자: 「오징어 게임」과 최신 한국 영화 보기』(2023). Павел Родькин. *Игрок 457: Смотрим «Игру в кальмара» и актуальное корейское кино*. Совпадение, 2023.

2 제노센트리즘은 자신의 사회적 생활 방식보다는 다른 문화와 사회의 문화적 관행, 예를 들어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음식 등을 선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18세기 유럽 미술, 철학, 민족지학에서 원시주의 운동이 고귀한 야만인을 낭만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Xenocentrism

3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Russian Orientalism: Asia in the Russian Mind from Peter the Great to the Emig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4 『KION 해외 콘텐츠 구매 연례보고서(2023년 10월~2024년 10월)』. 러시아 인터넷영상협회, 2024년.

5 Павел Родькин. *Мун Хун и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метамодерна*. М.: Совпадение, 2022.

‘세 번째 화폐’와 5G
금융·통신 인프라의 변화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특임강의교수

2026년 9월 러시아의 디지털 인프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9월 1일 디지털 루블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현금과 은행 계좌의 비현금 루블에 이은 ‘세 번째 형태의 화폐’를 일상 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루블은 기업의 결제 비용 절감과 공공 자금 관리에 장점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기존 결제 수단보다 뚜렷한 편익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9월 11일에는 주요 통신사들이 16개 도시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5G는 주파수 문제와 서방 장비 의존으로 도입이 늦어졌으나,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망을 활용하면서 4.63~4.99GHz 대역과 국산 기지국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정책은 모두 단순한 신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통신 인프라 자립과 국산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디지털 전환 방향을 보여준다.

‘세 번째 화폐’ 디지털 루블, 실험에서 일상으로

2026년 9월 1일 러시아에서 디지털 루블이 제한적인 시범 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도입 단계에 들어갔다. 디지털 루블은 현금과 비현금 루블에 이은 세 번째 형태의 러시아 법정통화다. 현금

> “디지털 루블은
> 현금과 은행 계좌의 비현금 루블에 이은
> 세 번째 형태의 러시아 법정통화”

1루블과 비현금(예금 등) 1루블, 디지털 1루블의 가치는 동일하며 서로 일대일로 교환된다. 디지털 루블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지는 국가 통화이기 때문이다. 일반 예금처럼 상업은행 계좌에 보관되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루블 계좌는 중앙은행의 전용 플랫폼에 존재하지만, 이용자는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별도의 중앙은행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개인은 월 최대 30만 루블까지 충전·이체할 수 있고 송금과 결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 이용 방식은 기존 은행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같은 날 러시아 주요 은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서비스 기업에도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은 고객에게 디지털 루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매출 1억 2,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대형 판매업체가 새로운 결제 수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본격적인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2] 적용 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판매업체를 시작으로 2027년 9월에는 연 매출 3,000만 루블 초과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2028년에는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과 함께 실제 소비 시장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9월 2일 러시아의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인 오존(Ozon),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 얀덱스 마

러시아 디지털 루블 로고 ⓒ《베도모스티》

켓(Yandex Market)이 안드로이드(Android)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루블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3] 그동안 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시험이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항공권 결제 사례도 등장했다. 디지털 루블의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된 첫날인 9월 1일에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의 아에로플로트 항공권이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루블로 결제됐다. 온라인 쇼핑과 교통 서비스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루블이 금융 기술 실험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초기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에 따르면, 본격 도입이 시작된 지 불과 3주 만에 약 20만 개의 디지털 루블 개인 계좌가 개설됐다. 이는 중앙은행이 애초 2026년 말까지 예상했던 약 6만 개의 3배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도 약 8,000개로 집계됐다.[4] 초기 단계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 상당한 관심을 보인 셈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미 카드 결제와 신속 결제 시스템(SBP)을 갖추고 있는데도 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만들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결제 비용 절감이다. 향후 기업에 적용될 디지털 루블 결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0.3%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카드 결제 수수료가 1.5~2.5%, 신속 결제 시스템 수수료가 0.4~0.7%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기업이 연간 최소 800억 루블의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프라 시험을 위해 2026년 말까지는 기업의 거래 수수료도 면제된다.[5]

공공 재정 관리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배정된 목적성 자금이 실제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결제 방식보다 자금의 이동과 사용 내역을 더 세밀하게 추적·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조달, 보조금, 사회 지출 등 공공 부문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의 비현금 루블은 상업은행 계좌와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반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루블은 중앙은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기존 카드 결제망과 신속 결제 시스템에 더해 중앙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또 하나의 전국 단위 결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로서는 아직 뚜렷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개인의 디지털 루블 송금과 결제가 무료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신속 결제 시스템에서도 상당수 송금이 이미 무료다. 디지털 루블 잔액에는 예금 이자가 붙지 않고 일반 은행 카드처럼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새로운 결제 수단의 장점을 중앙은행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6]

> “앞으로의 관건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 ‘세 번째 화폐’를 선택하느냐는 것”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루블 결제 ⓒ《RBC》

또 다른 경제지 《베도모스티》는 정부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기존 결제 수단 대신 디지털 루블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유인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7] 《코메르산트》도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도입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일부 기업과 경제 전문가는 새로운 결제 수단의 필요성을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드레이 네차예프 전 러시아 경제부 장관 역시 디지털 루블이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여러 은행 앱에서도 디지털 루블 계좌 개설 기능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은행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8]

결국 디지털 루블의 첫 시험대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왜 이것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는 공공 자금 관리 수단이 되고 기업에는 결제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선택을 끌어내려면 기존 카드나 신속 결제 시스템과 구별되는 분명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 9월 본격 도입은 디지털 루블이 실험 단계를 넘어 일상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계좌 수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 '세 번째 화폐'를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드디어 열린 5G 시대

디지털 루블이 금융 인프라의 변화라면, 2026년 9월에는 통신 인프라에서도 중요한 전환이 시작됐다. 9월 11일 러시아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MTS, 메가폰(MegaFon), 빌라인(Beeline), T2가 주요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했다. 16개 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카잔, 사마라, 벨리키노브고로드, 크라스노다르, 니즈니노브고로드, 트베리, 볼고그라드, 크라스노야르스크, 페름, 첼랴빈스크, 우파, 야로슬라블)의 인구 밀집 지역 일부에서 우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약 1,000만 명의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가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4대 사업자가 모두 서비스

>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시범 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

를 시작했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사업자별로 개통 지역이 달랐다.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부는 2026년 말까지 50개 도시를 추가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G 시범 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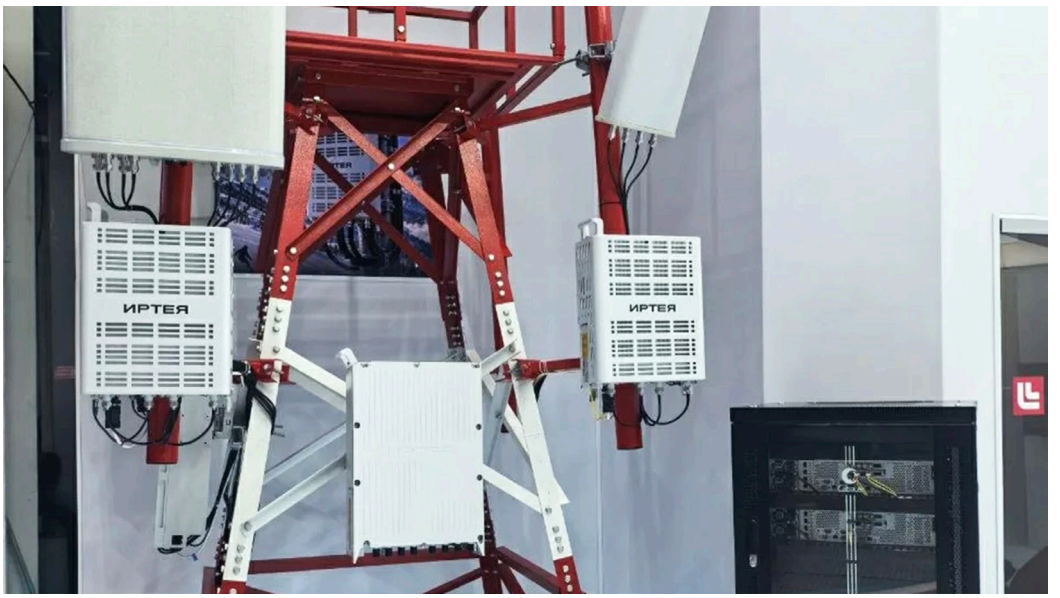
5G는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다. 빠른 전송 속도와 함께 짧은 지연 시간, 많은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공장 자동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업 전용망, 물류·교통 시스템 등 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러시아가 5G 도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의 5G 정책은 2017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본격화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과의 기술·장비 협력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초기부터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주파수였다. 세계적으로 5G 핵심 대역으로 사용되는 3.4~3.8GHz 주파수를 러시아에서는 군과 안보 기관의 위성통신 등에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국방부가 이 대역의 민간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5GHz 대역 대신 4GHz 후반대의 대체 주파수를 모색해야만 했다. 문제는 당시 이 대역을 지원하는 기지국과 단말기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러시아는 기존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5G 핵심 대역으로 4.63~4.99GHz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국에 새로운 망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5G가 완전히 새로운 통신망으로 한꺼번에 전환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LTE망 위에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이유다.

여기에 러시아 특유의 또 다른 목표가 결합해 있다. 바로 기지국의 국산화다. 러시아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5G망에서도 러시아산 기지국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1년에는 사실상 10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63~4.99GHz 대역에서도 외국산 장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후 국내 장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10] 5G 구축이 단순한 통신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통신 장비 산업의 수입 대체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생산 능력 사이에는 아직 간격이 있다. 특히 새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산 5G 기지국의 대량 공급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 정부는 MTS가 2027년 8월 1일까지 4.9GHz 대역에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5G 시범 구역을 운영하도록 허가했지만, 이는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 시험을 위한 조치다. 4대 통신사 가운데 이 대역에서 실제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현재로서는 MTS가 가장 적극적이다.[11]



MTS가 사용하는 이르테야 장비 ⓒ《RBC》

국산 장비의 실제 적용도 이제 시작됐다. 9월 14일 MTS와 러시아 통신 장비 업체 이르테야(Irteya)는 러시아 최초로 국산 5G 기지국을 상용망에 연동하는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 이르테야 장비는 4.9GHz 대역을 사용하면서 기존 LTE 코어망과 연결되는 비단독모드(NSA, Non-Standalone) 방식으로 작동한다. 통신사가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규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TS는 이미 이르테야가 생산한 1,000개 이상의 LTE 기지국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수백 대의 5G 기지국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12] 메가폰과 야드로(Yadro)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산 장비를 이용한 5G 네트워크 시험을 진행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산 장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국망을 확충하려면 통신업체들의 투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베도모스티》가 인용한 시장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 주요 통신업체의 설비 투자는 2026년 4,600억 루블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고, 2027년에는 약 25%가 추가로 증가해 5,800억 루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기지국 분야에만 매년 최소 200~300억 루블의 투자가 필요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13]

스마트폰이 실제로 5G 신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다. 《RBC》에 따르면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5G를 지원하더라도 애플이 러시아 이동통신망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활성화해야 하므로 현재 이용에 제한이 있다. 삼성 단말기도 러시아 네트워크에서 5G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선택한 4.63~4.99GHz 대역은 세계적으로 보

> “러시아 5G의 성패는
> 안테나 표시창에 ‘5G’가 뜨는 것보다는 그 뒤에 어떤 산업과
>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편적인 3.5GHz대보다 지원 단말기 수가 더 적다. 《인테르팍스》 역시 이 대역을 지원하는 기기와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네트워크 확대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14]

2026년 9월의 5G 개통은 러시아 통신망이 단번에 4G에서 5G로 전환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LTE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새로운 주파수와 국산 기지국을 중심으로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전환의 출발점에 가깝다. 이 점에서 러시아의 5G는 단순한 '속도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른 통신망을 구축하느냐를 넘어서,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통신사들이 증가하는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5G가 소비자용 이동통신을 넘어 실제 산업 디지털화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있다. 결국 러시아 5G의 성패는 안테나 표시창에 '5G'가 뜨는 것보다는 그 뒤에 어떤 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

1 "Как пользоваться цифровым рублем гражданам и бизнесу. Инфографика," 2026.9.1. https://www.rbc.ru/economics/01/09/2026/6a9169d79a7947b6c22078e2

2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заработал для крупнейших банков и торговых точек," 2026.9.1. https://www.rbc.ru/finances/01/09/2026/6a885b249a79470c51b844b1

3 "Ozon, Wildberries и «Яндекс Маркет»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цифровые рубли," 2026.9.2. https://www.kommersant.ru/doc/8923777

4 "Количество открытых счетов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превысило ожидания главы ЦБ." https://www.interfax.ru/amp/1117993

5 "Кому нужен цифровой рубль," 2026.9.1. https://www.vedomosti.ru/opinion/columns/2026/09/01/1225095-komu-nuzhen-tsifrovoi-rubl

6 "Цифровой рубль расходится по «кошелькам»." https://www.kommersant.ru/doc/8973556

7 "Кому нужен цифровой рубль," Op. cit.

8 "Цифровой рубль расходится по «кошелькам»," Op. cit.

9 "В России запустили 5G," 2026.9.11. https://www.vedomosti.ru/technology/articles/2026/09/11/1228045-5g-zapustili

10 "Поколенческий сдвиг." https://www.kommersant.ru/doc/8952830

11 "Минцифры: МТС смог запустить 5G в новых частотах из-за време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https://www.kommersant.ru/doc/8955496

12 "МТС и «Иртея» первыми подключили отечественную базовую станцию 5G к сети LTE," 2026.9.14. https://www.vedomosti.ru/technologies/industries_and_markets/news/2026/09/14/1228589-kommercheskoi-seti

13 "Капитальные вложения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могут вырасти на 10–25% на фоне запуска 5G," 2026.9.14. https://www.vedomosti.ru/technology/articles/2026/09/14/1228463-vlozheniya-operatorov-svyazi-mogut-virasti

14 "Операторы «большой четверки»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тары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частоты для сетей 5G." https://www.interfax.ru/business/1111413